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석사학위논문

Johann Sebastian Bach의 Sonata in
C Major for Flute and Basso Continuo,
BWV 1033에 대한 연구분석

제주대학교 대학원

음악학과

백경아

2022년 2월

Johann Sebastian Bach의 Sonata in
C Major for Flute and Basso Continuo,
BWV 1033에 대한 연구분석

지도교수 허 대 식

백 경 아

이 논문을 음악학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21년 12월

백경아의 음악학 석사학위 논문을 인준함

심사위원장 _____인

위 원 _____인

위 원 _____인

제주대학교 대학원

2021년 12월

Research and Analysis on Sonata in C Major
for Flute and Basso Continuo, BWV 1033
by Johann Sebastian Bach

Kyung A Baek
(Supervised by professor Dae-Sik Hur)

A thesis submitted in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 for the
degree of Master of Music

2021. 12

This thesis has been examined and approved.

Thesis director, Dae-Sik, Hur, Prof. of Music

Date 2021. 12

Department of Music
GRADUATE SCHOOL
JEJU NATIONAL UNIVERSITY

목 차

표목차	ii
악보목차	iii
국문초록	iv
I. 서론	1
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1
2. 선행 연구 고찰	2
II. 본론	4
1. 바흐의 생애와 음악	4
1) 바흐의 생애	4
2) 바흐의 음악	8
2. 바로크 시대 기악 음악의 중요 장르	15
1) 소나타	15
2) 협주곡	17
3) 서곡	19
4) 모음곡	21
3. 바로크 시대 플루트와 바흐의 8개의 플루트 소나타	23
1) 바로크 시대 플루트	23
2) 바흐의 8개의 플루트 소나타	25
4. J. S. Bach Sonata for Flute and Basso Continuo in C Major, BWV 1033에 관한 연구 분석	27
1) 제 1악장	28
2) 제 2악장	32
3) 제 3악장	39
4) 제 4악장	41
III. 결론	47
참고문헌	49
Abstract	52

표 목 차

<표 1> 바흐의 Flute Sonata를 도표	26
<표 2> J. S. Bach Flute Sonata BWV 1033 악장별 구조	28
<표 3> 1악장 형식 구조	28
<표 4> 2악장 형식 구조	32
<표 5> 3악장 형식 구조	39
<표 6> 4악장 형식 구조	42

악 보 목 차

<악보 1> 제 1악장 (1-2마디)	29
<악보 2> 제 1악장 (4-6마디)	29
<악보 3> 제 1악장 (10-11마디)	29
<악보 4> 제 1악장 (12-19마디)	30
<악보 5> 제 1악장 (Internation Music Company악보, 10-13마디)	30
<악보 6> 제 1악장 (21-26마디)	31
<악보 7> 제 2악장 (1-4마디)	33
<악보 8> 제 2악장 (5-12마디)	33
<악보 9> 제 2악장 (1-3마디, 14-16마디)	34
<악보 10> 제 2악장 (17-20마디)	34
<악보 11> 제 2악장 (21-28마디)	35
<악보 12> 제 2악장 (29-34마디)	36
<악보 13> 제 2악장 (33마디, 36-39마디)	37
<악보 14> 제 2악장 (39-42마디)	38
<악보 15> 제 2악장 (46-48마디)	38
<악보 16> 제 3악장 (1-5마디)	39
<악보 17> 제 3악장 (6-10마디)	40
<악보 18> 제 3악장 (10-14마디)	41
<악보 19> 제 4악장 (1-4마디)	42
<악보 20> 제 4악장 (5-8마디)	43
<악보 21> 제 4악장 (9-16마디)	43
<악보 22> 제 4악장 (1-8마디)	44
<악보 23> 제 4악장 (11-16마디)	45
<악보 24> 제 4악장 (17-22마디)	46
<악보 25> 제 4악장 (27-28마디)	46

국문초록

Johann Sebastian Bach의 Sonata in C Major for Flute and Basso Continuo, BWV 1033에 대한 연구분석

백 경 아

제주대학교 대학원 음악학과 Flute 전공

지도교수 허 대 식

본 논문의 목적은 요한 제바스티안 바흐(Johann Sebastian Bach, 1685-1750)의 음악적 특징을 설명하고 <Flute Sonata in C Major, BWV 1033>의 각 악장의 형식, 작곡기법과 특징에 관하여 연구분석하는 것이다. <Flute Sonata in C Major, BWV 1033>에 관한 이전의 논문들은 화성과 형식분석이 주를 이루었다. 물론 본문에서도 기존연구와 같은 문제를 상당 부분 다루었다. 연구자에게 필요한 연주기법에 대한 연구의 내용도 다루었다.

연구자가 이 곡을 정확히 알기 위하여 이 논문에서는 4가지 방법으로 접근하였다. 첫 번째는 바흐의 생애와 음악을 살펴봄으로써 바흐 음악의 특징을 살펴보았다. 두 번째는 바로크 시대의 기악음악과 종류를 살펴보았다. 세 번째는 <Flute Sonata in C Major, BWV 1033>이 작곡했을 당시의 플루트 악기에 대해서, 그리고 바흐의 8개의 플루트 소나타에 대해서도 언급하였다. 마지막으로 <Flute Sonata in C Major, BWV 1033>을 각 악장별로 연주자적 관점에서 분석 연구하였다.

연주자적 접근으로 연구한 본 논문은 바흐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뿐만 아니라 <Flute Sonata in C Major, BWV 1033>의 분석 설명과 연주기법에 대해서 설명하였다. 이 논문이 이 곡을 연주하는 연주자들에게 곡의 형식, 음악의 구조, 연주 기법 등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I. 서론

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요한 제바스티안 바흐(Johann Sebastian Bach, 1685-1750)는 바로크 시대의 대표적 음악가로서 음악 형식과 소나타 형식을 확립시키며 칸타타, 독주곡, 관현악곡 등 다양한 장르의 곡을 작곡하였고, 오페라를 제외한 모든 분야에서 수많은 걸작을 남겼다. 또한, 뛰어난 오르간 연주자였으며, 독일의 전통대위법 양식과 프랑스, 이탈리아의 새로운 양식을 자신만의 독창적인 스타일로 만들었다.

독일어로 ‘Johann Sebastian Bach’는 ‘작은 개천’이라는 뜻이 되기도 하는데, 이 표현에 대해 베토벤(Ludwig van Beethoven, 1770-1827)은 “그는 작은 개천이 아니라, 크고 넓은 바다라고 해야 마땅하다.”라고 표현을 했다.¹⁾ 바흐 협회는 그가 남긴 작품들을 모아 60권으로 출판하기까지는 40여 년 이상 걸렸고, 그렇게 하여 정리된 작품들의 수는 1000여 곡 이상이지만, 잊혀지고 찾을 수 없는 작품들이 얼마인지는 가늠할 수조차 없으나, 만약에 바흐가 작곡한 작품의 수와 양을 추정하여 발굴되고 복원될 수 있다면, 음악계에서는 커다란 자산이 아닐 수 없다. 바흐에 대한 유작 발굴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니 더 많은 바흐 음악들이 나오기를 기대해본다.

현재까지 연주 되고 있는 바흐의 실내악 작품들 대부분은 바이올린과 비올라, 그리고 하프시코드를 중심 악기로 한 트리오 소나타인데, 여기에 포함된 관악기는 오보에가 다수를 차지한다. 이 오보에를 빼고 나면 바흐가 관악기 중 독주 악기로 제일 많이 작곡에 쓰는 악기는 플루트였다.

본 논문은 바흐의 기악곡 창작 활동이 가장 활발했던 쾨텐(1717-1723)²⁾ 시기에 작곡된 8곡의 플루트 소나타 중 Sonata in C Major for Flute and Basso

1) [https://namu.wiki/w/요한 제바스티안 바흐/나무위키:대문#p1](https://namu.wiki/w/요한_제바스티안_바흐/나무위키:대문#p1)[2021년 5월 3일 접속]

2) 쾨텐의 궁정은 칼뱅주의(개혁신주)여서 복잡한 교회음악보다 세속적인 경향의 음악이 작곡됨. 바흐는 이때 세속적인 합주곡과 실내악들을 작곡.

Continuo, BWV 1033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 연구의 목적은 바흐 플루트 소나타의 구성과 형식을 분석하여, 작곡가의 의도를 바르게 이해하여 올바른 연주를 위해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고자 하는 것에 있다.

2. 선행 연구 고찰

선행 연구로는 기존의 연구 중에 Sonata in C Major for Flute and Piano, BWV 1033 혹은 1033과 다른 소나타들과 비교 분석한 몇 편을 살펴보았다. 플루트에 관한 논문들에서는 본론 부분에서 거의 동등한 주제들을 다루어진 것을 볼 수 있었다. 즉, 바로크 시대에 대한 음악적 요소와 바흐 생애, 바로크 소나타 등, 본 논문 또한, 본론에서는 선행논문 요소들 범위를 중복관찰 해야만 하는 고민을 해야 했다.

김은주 논문에서 위작에 대한 의혹을 실증적 방법에 의해 분석하여 BWV 1033 소나타의 전체적인 구조와 형식을 설명하였고, 악장의 선율-리듬-박자-작곡기법 등을 자세히 분석하였다.³⁾ 이 논문의 악보는 독일의 Bärenreiter 출판사이다. 안주희 논문에서는 구체적인 화성 분석은 하지 않았지만, 형식, 조성, 빠르기를 중심으로 전체적인 흐름을 이론적으로 정리하였으며, 악보는 위 김은주 논문처럼 독일의 Bärenreiter 사에서 출판된 것을 사용하고 있다.⁴⁾ 성은민은 바흐와 프로코피예프(Sergei Prokofiev 1891-1953) 두 소나타를 비교분석 하였는데, 두 작품 경향 및 이 작품들의 작곡 배경을 문헌을 통해 고찰하고, 플루트와 통주저음을 중심으로 분석되어 있다.⁵⁾

김해나는 바흐와 폴랭(Francis Poulence 1899-1963) 두 소나타를 비교 분석하

3) 김은주, "J.S. Bach의 Flute Sonata in C Major BWV 1033 작품분석연구," (석사학위논문, 계명대학교), 2016.

4) 안주희, "J.S. Bach의 Sonata in C Major for Flute and Piano, BWV. 1033에 대한 연구분석," (석사학위논문, 단국대학교), 2013.

5) 성은민, "Johann Sebastian Bach Sonata for Flute and Basso Continuo in C Major, BWV 1033과 Sergei Prokofiev Sonata for Flute and Piano in D Major, No. 2 Op. 94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단국대학교), 2011.

였는데, 두 작품을 통해 여러 가지 음악의 요소, 공통된 부분과 다른 부분에 관해 비교 연구했다.⁶⁾ 이미경은 바흐의 관현악 모음곡과 BWV 1033의 비교연구에서, 특징적인 기법과 형식상의 차이점을 분석하며 바흐의 작품들이 난해하기보다는 자유스러운 작품임을 나타냈다.⁷⁾ 김계향은 바흐와 타타키쉬빌리(Otar Vasilisdze Taktakishvili 1924-1989)의 두 소나타 비교분석에서 바로크 시대 플루트와 개량된 현대 플루트로 연주되는 두 작품 비교, 공통점과 다른 점을 비교 연구하였다.⁸⁾

선행논문들의 분석 면에서 형식분석으로는 김은주, 안주희, 성은민 논문들이, 그리고 분석비교 연구로는 성은민, 김해나, 이미경, 김계향 논문들이다. 본 논문에서도 기존연구와 같은 문제를 상당 부분 다루었으나, 연주기법 등 시각을 달리하였다. 본 논문의 분석 악보는 독일의 Bärenreiter사에서 출판된 것을 사용하였다.

6) 김해나, “J.S. Bach의 Flute Sonata in C Major B.W.V. 1033과 F. Poulenc의 Flute Sonata에 대한 비교연구,” (석사학위논문, 가천대학교), 2019.

7) 이미경, “J.S Bach의 관현악 모음곡 2번 B.W.V 1067과 Flute Sonata B.W.V 1033에 관한 비교연구,” (석사학위논문, 경원대학교), 2005.

8) 김계향, “J. S. Bach의 Flute Sonata BWV.1033과 O. Taktakishvili의 Flute Sonata에 대한 비교연구,” (석사학위논문, 경원대학교), 2012.

II. 본 론

1. 바흐의 생애와 음악

1) 바흐의 생애

(1) 유년 시절(1685 - 1703)

요한 제바스티안 바흐(Johann Sebastian Bach, 1685-1750)는 1685년 3월 21일 중부 독일의 소도시 아이제나흐(Eisenach)에서 요한 암브로시우스 바흐(Johann Ambrosius Bach, 1645-1695)와 어머니 마리아 엘리자베스 램머히르트(Maria Elisabeth Lämmerhirt, 1644-1694)의 여덟 자녀 중 막내아들로 태어난 독일의 작곡가이자 오르가니스트이며, 개신교회의 교회 음악가이다. 아이제나흐에 있는 라틴어 학교에 들어가 인문학과 신학을 공부하였으며, 음악교육은 부친으로부터 바이올린을 배우면서 시작되었다. 사촌과 큰아버지한테서 오르간을 배우게 됐고, 교회 부속 학교에 다니면서 성가대원으로도 활약하며, 자연스럽게 음악 생활에 젖어 든다.

9세에 부모님을 잃은 바흐는 큰형 요한 크리스토프 바흐(Johan Christoph Friedrich Bach, 1671-1721)와 함께 살게 되면서, 형으로부터 본격적으로 작곡 기초를 배우기 시작한다. 그러다 형이 돌보아야 할 가족이 늘어나 생활이 어려워지자, 15세가 되면서 바흐는 경제적 독립을 위해 북부 독일의 뤼네부르크(Lüneburg) 고등학교에 장학생으로 들어가, 그곳에서 유명한 오르가니스트 겸 작곡가인 게오르크 뵘(Georg Böhm)⁹⁾과 얀 아담스 라인켄(Jan Adams Reinken)¹⁰⁾을 알게 되어 큰 음악적인 영향을 받는다.

또한, 이 학교에서 라틴어와 정통 루터교의 신앙교육도 함께 받게 되어 바흐의 신앙의 초석을 다지게 된다. 유년 시절 다음 그의 생애는 보통 그가 옮겨 다녔던

9) Georg Böhm (1661 - 1733)은 중부 독일에서 태어난 후기바로크 시대에 활약한 오르간 연주자, 음악선생 겸 작곡가.

10) Johann (Jan, John) Adam Reincken (1643-1722)은 독일의 오르간 연주자이자 작곡가.

지역을 따라 구분하는데 대체로 아른슈타트 시절(1703-1707)-바이마르 시절(1708-1717)-쾨텐 시절(1717 - 1723)-라이프치히 시절(1723 - 1750) 이렇게 구분한다. 이 구분에 따라 정리하여 본다.

(2) 아른슈타트 시대(1703-1707)

8세 되던 해 요한 에른스트(Johann Ernst)공작¹¹⁾의 바이마르 궁정에서 바이올린 주자로 잠시 있다가, 6월에 아른슈타트(Arnstadt) 교회로 옮겨 오르가니스트 직을 얻는다. 이 시기는 바흐가 오르간 연주와 작곡의 기초를 굳혀 서서히 자신의 양식을 형성하고 있던 중요한 시기였으며, 전주곡과 푸가, 토카타와 푸가는 디트리히 북스테후데¹²⁾의 영향이 뚜렷이 나타나 이 시기의 화려한 오르간곡에 명확한 자취를 남기고 있다.

그러나 그를 감독하는 입장에 있었던 성직자 의회와 자주 충돌하여, 1707년 6월 새로운 직장을 찾아, 같은 중부 독일의 도시 뮐하우젠(Mühlhausen)으로 갔다. 뮐하우젠에서는 교회 오르가니스트로서 활약하며 칸타타의 작곡에도 열정을 바치며 1년 남짓한 동안 <주여, 깊은 심연에서 당신을 부르나이다>(BWV 131), <하나님의 때는 최상의 때>(BWV 106),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도다>(BWV 71)와 같은 초기 칸타타의 명작을 작곡하였다. 그러나 루터파 내부의 정통파와 경건주의 사이의 분쟁 문제로 인하여 바흐는 뮐하우젠 생활에서 1년 만에 이곳을 떠나게 되었다.

(3) 바이마르 시대(1708-1717)

1708년 7월 23세 때 바흐를 맞이한 것은 바이마르 궁정이었다. 한때는 보잘것 없는 연주가로, 음악가로 취직하였던 바이마르, 이제 젊은 대가가 된 바흐는 궁정 예배당의 오르가니스트로서 돌아온 것이다. 이 바이마르 시대를 바흐의 ‘오르간곡의 시대’라고 구분하기도 한다. 현재 연주되고 있는 많은 오르간곡들이 여기

11) Johann Ernst III, Duke of Saxe-Weimar (작세-바이마르 공작 요한 에른스트 3세- 1664-1707)는 바이마르 공작이었으며 음악 감독관이자 작곡가로 알려져 있다

12) 디트리히 북스테후데(Dietrich Buxtehude, 1637-1707)는 17세기 독일 바로크를 대표하는 가장 중요한 오르간 연주자 겸 작곡가 중 한 사람이었으며 오르간 작품과 성스러운 성악 작곡은 17세기 북독일 작곡 학교의 정점이었다. 독일 프로테스탄트 음악 대표적인 작곡가.

서 작곡되었으며, 많은 사람에게 감동을 주는 훌륭한 오르간 연주자로서 그의 이름은 독일에 널리 알려지게 되었다.

1714년 궁정악단의 콘서트마스터에 임명된 바흐는 매월 한 곡씩 신작 칸타타를 연주할 의무를 부여받았다. 그리하여 (하늘의 왕이시여, 어서 오소서 BWV 182), (눈물 흘리며 탄식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하도다. BWV 12), (오라, 이방인의 구세주여 BWV 61), (나의 마음은 피바다를 건너노라. BWV 199) 등의 많은 바이마르 칸타타를 남기게 된다.

여러 작품 중 분명히 바이마르 시대에 작곡된 곡들은 오르간 소곡집 BWV 599-644 (Orgelbüchlein BWV 599-644)에 있는 대부분 작품과 소위 18곡의 ‘대’ 코랄 전주곡이라고 불리는 작품(그중 마지막 18번째 곡은 제외), 최초의 오르간 트리오, 오르간 전주곡과 푸가들이다. 오르간을 위한 “전주곡과 푸가 G장조 BWV 541”는 1715년경에 최종적으로 개작되었고, “토카타와 푸가 F장조 BWV 540”는 바이센펠스에서 연주되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바이마르 궁정에서는 당시 음악적으로 선진국인 이탈리아에 문호를 개방하여 당시의 가장 활발하게 활동하며 새로운 음악가였던 비발디, 코렐리 등의 협주곡이 즐겨 연주되었는데, 바흐는 그것들에 흥미를 느껴 열심히 연구하여 이탈리아 음악 구성체계를 배우며, 또한 이탈리아 협주곡의 형식과 기법이 바흐의 작품에 깊은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 성과는 바이마르 후기 오르간곡에 라틴적 명쾌함이 반영되어 나타나며, 이어 쾨텐 시대에 수많은 협주곡을 남게 된다.

(4) 쾨텐 시대(1717 - 1723)

바흐는 쾨텐의 바이올린 연주가이기도 한 레오폴트 대공 (Leopold von Anhalt-Köthen)¹³⁾측에서 제의한 궁정 악장 자리를 수락했고, 1717년 8월 그 취임이 확정되었다. 당시 궁정악장의 위치는 음악가가 오를 수 있는 최고의 사회적 위치, 지위였으며, 열광적인 음악애호가인 영주도 바흐의 재능을 높이 평가하여 이례적으로 높은 봉급으로 대우했다.

쾨텐의 궁정은 칼뱅주의¹⁴⁾여서 교회음악을 그리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기에 바

13) 레오폴트 폰 안할트쾨텐(Leopold von Anhalt-Köthen, 1694-1728)은 독일 아스카니아 왕가의 왕자.

호의 주된 업무는 궁정의 영주나 귀족들을 위한 세속적인 합주곡, 실내악, 성악 곡들을 작곡하는 일이었다.

이런 이유로 세속적인 기악곡 대부분이 이 시기에 작곡되었는데, 6곡의 브란덴부르크 협주곡 (BWV 1046-1051), 무반주 바이올린을 위한 소나타와 파르티타 (BWV 1001-1006), 무반주 첼로를 위한 모음곡(BWV 1007-1012) 등 빼어난 곡들이 태어났다. 곡 대부분은 이 시대의 풍요한 환경과 정신적으로도 물질적으로도 풍성한 생활을 반영하듯 곡들은 밝고 즐거운 기분으로 가득 차 있다.

뮐하우젠 시대인 1707년, 바흐는 사촌누이인 마리아 바르바라와 결혼하여 7명의 자식을 얻었는데, 쾨텐 시대인 1720년에 마리아가 갑자기 사망한다. 다음 해인 1721년, 그는 바이센펠스의 트럼펫 연주자의 딸, 16살 아래인 소프라노 가수 안나 막달레나 빌케와 재혼하고, 13명의 아이를 얻었다. 그러나 불행히도 자녀 20명 중 절반이 어린 시절 사망하였는데, 특히 바흐의 자녀 중 세 아들, 빌헬름 프리데만, 칼 필립 엠마누엘, 그리고 요한 크리스티안이 위대한 아버지의 천재성을 이어받아 뛰어난 음악가로 성장하였다.

쾨텐 시대에는 이들 아들이나 바흐의 명성을 흠모하여 모여든 제자들을 위하여 <평균율 클라비어곡집> 제1권(BWV 846-869), <인벤션>¹⁵⁾ (BWV 772-801)을 비롯한 수많은 클라비어 곡도 작곡하였다.

(5) 라이프치히 시대(1723 - 1750)

독일 바로크의 중요한 작곡가 요한 쿠나우(Johann Kuhnau)¹⁶⁾의 후임으로 1723년 라이프치히의 토마스 교회의 칸토르로 취임되어 1750년 세상을 떠날 때까지 토마스 교회에서 지내면서 교회음악의 최고 책임자, 음악 감독으로서 작품에 열정을 가지고 정력적인 작곡 활동을 계속하였다. 칸토르 자리는 루터파 세계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위치, 직위였다. 라이프치히에서 작곡 중심은 <마태 수난곡 St. Matthew Passion, 1729 >(BWV 244)을 비롯하여 <나단조 미사>(BWV 232), <크리스마스 오라토리오 Christmas Oratorio¹⁷34 >(BWV 248), 등이며 신

14) 칼뱅주의(프랑스어: Calvinisme) 또는 개혁주의는 장 칼뱅이 주창한 기독교의 사상 및 성경을 따르는 신학 사상.

15) 인벤션(Invention)이란 악곡의 형식으로, 다성음악으로 된 즉흥곡.

16) 요한 쿠나우(Johann Kuhnau, 1660-1722)는 독일의 작곡가, 오르가니스트, 쳄발로 주자.

양심이 깊은 교회 음악가로 돌아온 바흐는 1723년부터 1729년까지 교회력에 따라 연중 예배 곡으로 작곡되어 약 160여 곡의 칸타타를 작곡했다.

본인이 음악적 이상을 끝까지 관철코자 했던 원칙주의자 바흐는, 시의회 관료들이나 교회의 담당자들과 자주 충돌하였고, 이로 인해 종교음악에 흥미를 잃어가며 교회음악의 일에 점점 정열이 식어갔다.

1731년경부터는 이전에 작곡한 것을 고치거나 몇 편의 작품을 묶어 곡집 형태로 정리하기도 하여 출판하는 작업에 적극적으로 나섰다. 클라비어를 위한 파르티타 (BWV 825~830, 1731), 이탈리아 협주곡 (BWV 971), (골드베르크 변주곡 BWV 988, 1742), 오르간 미사곡(BWV 552, BWV 669~689, BWV 802~805, 1739) 등이 그 예이다.

1747년, 바흐가 포츠담의 궁정으로 프러시아의 왕 프리드리히 2세(Frederick the Great)¹⁷⁾를 방문했을 때, 왕이 제출한 주제를 기초로 즉석에서 하나의 푸가를 만들어 즉흥연주를 해 보였다. 이것이 동기가 되어 카논과 푸가로 구성되어 작곡한 것이 대왕에게 헌정한 ‘음악에의 헌정’(Musical Offering, BWV 1079)¹⁸⁾이다.

그가 말년에 흐려지는 시력에도 끝까지 완성하고자 했던 <푸가의 기법(Die Kunst der Fuge, BWV 1080)>¹⁹⁾을 완성하지 못하고 미완성 유작으로 남겨진 채 1750년 3월 두 차례의 백내장 수술을 받았으나 더 악화되어 끝내 시력을 잃었고, 위대한 독일의 작곡가 바흐는 7월 28일 저녁 마지막 숨을 거두었다.

2) 바흐의 음악

현재 연주되고 있는 바흐의 작품들은 작곡기법적인 측면에서 바로크 대위법의 정점에 우뚝 선 작품들이며, 바로크 시대 음악에서 주된 악곡의 형식인 푸가 작품들도 상당히 많다. 바흐는 음악사를 통틀어 푸가의 대가이며 완성자이다. 평균

17) 독일 프로이센 왕국의 제3대 국왕.

18) 요한 제바스티안 바흐가 1747년에 작곡한 곡으로 2개의 리체르카레와 1개의 트리오 소나타, 그리고 10개의 캐논이 구성되어 있다.

19) 푸가의 기법은 바흐가 1750년 세상을 떠나기 직전까지 작곡했던 최후의 작품으로 ‘백조의 노래’라 불리는 <푸가의 기법>은 <음악의 헌정>과 더불어 바흐의 대표적인 걸작. 단순한 주제를 바탕으로 한 열네 개의 푸가와 네 개의 카논으로 구성된 곡.

을 클라비어곡집, 특히 후기작품들인 음악의 헌정, 미완성으로 남겨졌지만 푸가의 기법 등은 바흐 푸가의 대표적인 것들이다.

음악의 다양한 장르 측면에서 그 당시 큰 인기를 끌었던 오페라는 단 한 곡도 작곡하지 않았으며, 오페라를 제외한 모든 형식과 분야에서 어마어마한 업적과 후대에 큰 음악적 영향력을 남기기도 하였다. 특히 교회음악과 오르간 분야에서는 곡 수준으로나 양으로도 음악사에 독보적인 존재로 평가된다.

바흐의 대위 작곡기법은, 자기 아들들은 물론 후대의 모든 작곡가에게 끊임없는 연구, 모방 대상이 되었으며 이런 경향은 현재도 진행 중이다. 하지만 바흐는 단순히 대위법이나 작곡수법의 정교함으로만 평가되어서는 안 될 작곡가이다.

작곡기법적으로 훌륭하거나 기존에 없었던 독특한 새로운 음악 어법을 창시한 작곡가들은 음악사에 바흐 말고도 상당히 많다. 그러나 다른 많은 작곡가가 바흐 음악에 필적할 수 없는 진정한 위대함은 그 깊이에 있다고 하겠다. 바흐 이전에도 이후에도 서양 음악 분야에서 작곡가들이 감동적인 수많은 창작곡 들을 내놨지만, 결국에는 많은 후대 작곡가들의 곡들은 바흐의 음악적 유산의 영향으로 이를 수 있는 작곡기법에 따른 것이라 할 수 있다.

바흐는 대위법²⁰⁾의 작곡기법에 정점을 이룩한 사람이나, 그것에만 만족하지 않고, 당시에 이미 궁정 문화에 스며들었던 프랑스나 이탈리아 양식들의 새로운 음악 흐름에 매력을 느낀 바흐는, 더 적극적으로 두 나라 양식들을 받아들여 이탈리아, 프랑스, 독일의 혼합된 양식의 스타일을 적용하여 본인의 음악 경지를 넓혀나가게 된다.

바흐는 유년 시절부터 오르간에 상당한 애착과 관심을 가져서, 그 당시 오르간으로 가장 유명했던 북독일의 북스테후데와 남독일의 요한 파헬벨에게 오르간 음악의 연주법과 작곡법을 익히게 된다. 그런 영향으로 바흐의 약 600개의 기악 작품 중 거의 반에 가까울 정도로 오르간 작품에 심취해 있었다.

다음에 바흐는 독일 전통의 대위법에 코렐리²¹⁾ 와 안토니오 비발디²²⁾로 부터

20) 두 개 이상의 선율을 독립적으로 활용하여 조화로운 음악을 만드는 작곡기법. ‘음표 대 음표’를 뜻하는 라틴어 Punctus Contra Punctum에서 유래하였다.

21) 아르칸젤로 코렐리(Arcangelo Corelli, 1653-1713)는 이탈리아의 바로크 기악곡 작곡가.

22) 안토니오 루치오 비발디(Antonio Lucio Vivaldi, 1678-1741)는 이탈리아 베네치아의 성직자, 작곡가이자 바이올린 연주가.

이탈리아음악의 풍부한 화성과 협주 양식을 조화롭게 적용하였으며, 그는 그들의 악보를 필사하고, 편곡하며 자기 고유한 양식으로 만들었다. 릴리²³⁾와 쿠프랭²⁴⁾에게서 프랑스 음악적인 건반 작곡기법과 프랑스 음악 양식인 서곡, 조곡의 영향을 받은 것이다.

이러한 당시의 여러 나라 음악의 전통과 양식이 바흐의 특출한 개성 속에서 조화롭게 융화된 음악을 낳게 한 것이다. 그러나 바흐를 전통적인 보수주의자, 여러 양식을 혼합 모방자로만 평가되는 것은 잘못이라 하겠다. 결국, 바흐는 모든 음악의 양식을 조화롭게 적용시켜 바흐만의 독특한 음악 어법을 창조해낸 것이다.

그는 오페라를 제외한 여러 장르의 무수히 많은 양의 작품들을 남겼다.

성악곡으로 가장 많은 수를 기록하고 있는 것은, 대략 200곡이 남아있는 칸타타²⁵⁾이며, 대규모 성악곡으로는 마태 수난곡 BWV 244, 요한수난곡 BWV 245, 미사 b단조 BWV 232, 크리스마스 오라토리오 BWV 248 등이며, 그 외 미사, 마니피캇 BWV 243, 모테트 BWV 118, 225-231, 가곡 등을 다양하게 작곡하였다.

기악곡으로는 관현악 모음곡 BWV 1066-1071, 6곡의 브란덴부르크 협주곡 BWV 1046-1051, 무반주 바이올린을 위한 소나타와 파르티타 BWV 1001-1006, 무반주 첼로 모음곡 BWV 1007-1012 등이 있으며, 오르간곡으로는 오르간을 위한 토카타와 푸가 BWV 538, 654-566, 전주곡과 푸가 BWV 531-552, 오르간 소곡집 BWV 599-644, 파사칼리아와 푸가 BWV 582 등이 있다.

건반악기로는 클라비어(첼발로)를 위한 프랑스모음곡 BWV 812-817, 영국 모음곡 BWV 806-811, 평균율 클라비어 곡집1 BWV 846-869, 곡집2 BWV 870-893, 골드베르크 변주곡 BWV 988등이 각 분야에서 유명한 곡의 예로 꼽힌다.

그리고 말년의 ‘음악적 헌정’이나 시력의 악화로 인하여 완성하지 못한 ‘푸가의 기법’은 바흐의 대위법 예술의 정점을 보여주는 최후의 미완성 걸작으로, 대부분 악기를 지정하지 않은 추상적인 성격을 지니고, 일반적으로는 특수작품으로서 별개로 분류된다.

바흐는 사후 음악사에 새로운 음악 경향인 고전주의 흐름에 밀려 거의 잊혀

23) 장-바티스트 릴리(Jean-Baptiste Lully, 1632-1687)는 이탈리아 출신의 프랑스 작곡가.

24) 프랑수아 쿠프랭 (François Couperin, 1668-1733)은 프랑스의 작곡가이자 오르간 연주자이며 하프시코드 연주법을 확립하여 하프시코드 음악의 완성자.

25) 칸타타(Cantata)란 성악곡의 하나로, 악기 반주가 동반되는 악곡의 형식.

졌으나, 바흐가 다시 음악사에 알려지게 된 계기는 독일의 음악 사학자인 포르켈(Johann Nikolaus Forkel)²⁶⁾이 1802년 바흐에 관한 최초의 연구서인 “바흐의 생애와 예술, 그리고 작품”²⁷⁾이 발표되면서 세상에 알려지기 시작했다. 이 책은 바흐 사후 50년간 세상에서 잊혀졌던 바흐에 대한 재평가에 결정적 전환점을 제공한 최초의 전기이며 연구서이다. 이 연구서는 후에 멘델스존이 바흐의 작품을 다시 연주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된다.

특히 19세기에 바흐 음악은 G.P.팔레스트리나와 나란히, 오랜 음악 전통의 상징적 존재로 여겨지면서, 모든 음악가의 학습 대상과 존경이 되고 있다.

그중 몇몇 작곡자들을 살펴보면;

베토벤은 바흐를 ‘작은 개천이 아니라 큰 바다이다’(Bach는 독일어로 ‘작은 개천’이란 뜻)라고 말할 정도로 바흐를 존경하였고, 그의 스승인 크리스티안 고트롭브 니페²⁸⁾는 베토벤에게 바흐의 건반 음악을 집중적으로 가르치면서 대위법의 매력을 알려주었다. 또한, 바흐의 평균율 클라비어 곡집²⁹⁾의 중요성과 교육용 교재로 베토벤에게 평균율 클라비어 곡집을 철저히 교육하였고, 그 결과 대위법, 푸가 같은 작곡기법들을 자연스럽게 익히며 영향을 받았다.

그런 배경으로 베토벤은 바흐에게 존경과 어릴 때 교육요인으로 푸가 형식에 깊은 관심을 두고 있었으며, 종종 자신의 작품에 푸가 형식을 사용하곤 하였다.

그 작품들을 보면, Piano Sonata No. 29, Op. 106에서 4악장 전체의 푸가, String Quartet No. 9, Op. 59의 3, 4악장에서 푸가, Symphony No. 3, Op. 55에서 2악장과 4악장에 푸가적인 부분사용, Symphony No. 9, Op. 125에서 4악장에 푸가적인 부분사용 등 여러 작품에서 푸가 사용을 볼 수 있다.³⁰⁾

나주리는 음악논단에 “베토벤의 피아노소나타 Op. 110의 푸가”를 발표하면서

26) 요한 니콜라우스 포르켈(Johann Nikolaus Forkel 1749-1818)은 독일 출신의 음악 사학자이자 대학교수.

27) 바흐의 생애와 예술, 그리고 작품은 Johann Nikolaus Forkel의 위대한 작곡가 바흐의 첫 번째 전기.

28) 크리스티안 고트롭브 니페 (1748-1798)는 독일의 오페라 작곡가 겸 지휘자, 오르간 연주자, 교사.

29) 평균율 클라비어 곡집(The Well-Tempered Clavier, BWV 846 - 893)는 요한 제바스티안 바흐가 각각 모든 24개의 장조와 단조로 쓴 전주곡과 푸가의 모음곡 2권, 각 24곡, 전부 48곡.

30) 이희영, “베토벤(L. v. Beethoven) 후기 피아노 음악에 나타나는 푸가 특징연구 : 『Piano Sonata Op. 110의 3악장』 과 『Diabelli-Variations의 32 Var.』 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명지대학교), 2017, 16.

“진정한 예술의 가치”, 천재적 독창성을 품은 바흐의 음악을 터득하고 수용해서, 음악예술의 “전진”으로서 “더 나은 예술의 결합”, 발전된 융합적 음악을 이루어낼 수 있으며, 또 그리해야 한다는 믿음을 베토벤은 밝히고 있는 것이다”³¹⁾

라고 베토벤이 바흐에 대한 음악관을 인용하고 있다.

프레데리크 쇼팽은 자신의 일생동안 바흐와 모차르트를 가장 존경하며 추종하였다. 그는 바흐의 아주 완벽한 음악 체계를 자신의 음악으로 끌고 와서 새로운 피아노 테크닉을 만들어냈는데, 그중 바흐의 전주곡(평균율)에서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차용하여 프렐류드 Op. 28 (24개의 조성으로 작곡되었으며 병행조로 짝을 지어 5도씩 상행하고 있다)과 Op. 45 (단일 곡) 를 작곡하기도 하였다.³²⁾

로베르트 슈만³³⁾의 바흐의 음악적 영향을 보면 “페달 피아노를 위한 6개의 연습곡 Op. 56”의 C장조의 1곡은 전체 작품 중에서 바흐와 바로크 음악의 색채를 가장 짙게 띠는 곡인데, 바흐의 모방 변주곡과 2성 인벤션 작품에서 음악적인 영감을 받았다고 한다.³⁴⁾

슈만은 바흐의 푸가를 그에게 가장 이상적인 음악으로 간주하였는데, 이에 바흐의 작품은 슈만에게 서정 형식의 좁은 영역과 단조로움에서 벗어나는 길인 폴리포니를 열어 주었다. 슈만의 바흐 푸가 수용을 대표하는 작품인 “B-A-C-H의 주제에 의한 6개의 푸가 Op. 60”은 B-A-C-H (Bb-A-C-B)의 4개의 음으로 시작하는 주제들에 의해 대위법적 기법을 가지고 작곡됐는데, 역시 바흐의 대위법에 영감을 받아 작곡한 것이다. ³⁵⁾

멘델스존³⁶⁾은 누구도 알아보지 못했던 바흐의 “마태 수난곡”³⁷⁾의 진가를 발견하여 그 곡을 7년 동안 집중적으로 연구한 후, 역사적인 연주를 마태 수난곡이 초연된

31) 나주리, “베토벤의 피아노소나타 op. 110의 후가: 그 에스러운 ‘시적 아이디어’에 대하여”, 「음악논단」 45 (2021), 102.

32) 이호건, “An Analytic Study of F. Chopin’s 24 Preludes, Op. 28: Focusing on Some Innovations in Musical Form,” (석사학위논문, 한양대학교). 2017, 16.

33) 로베르트 알렉산더 슈만(Robert Alexander Schumann 1810-1856)은 독일의작곡가, 피아니스트이자 음악평론가이다. 멘델스존과 함께 독일의 초기 낭만주의를 대표하는 작곡가.

34) 황혜은, “Robert Schumann의 오르간 음악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2003, 7.

35) 상계서, 37

36) 펠릭스 멘델스존 (Felix Mendelssohn 1809 - 1847)은 독일 태생의 초기 낭만파 작곡가, 지휘자, 피아니스트.

37) 마태 수난곡은 요한 제바스티안 바흐가 1727년에 작곡한 수난 오라토리오.

지 정확히 100년 후인 1829년 3월 11일 베를린의 징 아카데미(Sing akademie) 에서 마태 수난곡을 지휘, 복원하면서 다시 한번 바흐 열풍을 일으켰다. 이로 인해 누구보다도 내면적인 음악 세계가 바흐 음악과 깊은 유대가 생겼음을 알 수 있다. 오라토리오 “사도 바울 (Paulus, Op. 36)”에서도 바흐의 영향을 찾아볼 수가 있는데, 바흐의 칸타타 (BWV 140) “깨어라, 우리를 부르는 소리가 있어”는 이 곡 전체의 근간이 되는 선율로 서곡과 제16곡 코랄 “일어나라, 자는 자여” 에도 나타난다.³⁸⁾

신혜영은 “멘델스존과 J. S. 바흐”의 논문에서

...멘델스존은 생애 전반에 걸쳐 바흐의 모습을 그의 작품 속에 지속적으로 담아왔음을 볼 수 있다.

특히 멘델스존 양식 중에서 초기 모델이었던 대위법 양식에서 비롯된 바흐의 푸가는 멘델스존의 여러 작품 속에 지속적으로 사용된다.³⁹⁾

라고 발표하고 있다.

요하네스 브람스⁴⁰⁾가 남긴 여러 작품에서, 바흐에게 받은 깊은 영향의 흔적이 배어있는데, 예를 들면 브람스 첼로 소나타 1번 E 단조 작품번호 38의 푸가로 된 피날레는 바흐가 남긴 최후의 작품-일명 ‘백조의 노래’로 알려진 바흐의 푸가의 기법(BWV 1080)을 차용 하거나 하는 식이다. 또한, 브람스 교향곡 4번 4악장에서 샤콘느는 바흐의 칸타타 BWV 150 ‘주님, 저희는 당신을 갈망합니다’의 마지막 악장 파사칼리아에서 영향을 받은 것이다.⁴¹⁾

현대음악의 문을 연 아르놀트 쇤베르크⁴²⁾는 Five Piano Pieces Op. 23에서처럼 ‘12음 기법’의 이론적 기초를 바흐의 대위법에서 구한 점도 주목할 만하다.⁴³⁾

신 바로크 주의를 표방한 파울 힌데미트⁴⁴⁾의 바흐 영향은 ‘대위법의 조성적 구조 및 피아노 주법에 관한 연구’라는 부제가 붙은 피아노작품 ‘음의 유희’ (Ludus

38) 신혜영, “멘델스존과 J. S. 바흐,” (석사학위논문, 한양대학교), 2007, 45.

39) 상계서, 38

40) 요하네스 브람스(Johannes Brahms 1833-1897)는 독일의 작곡가이자 피아니스트, 첼리스트, 바이올리니스트, 지휘자이다. 그는 낭만주의 음악의 선도적 작곡가였으며 전통주의자이자 혁신자.

41) https://ko.m.wikipedia.org/wiki/요하네스_브람스/위키백과#p1 [2021년 5월 3일 접속].

42) 아르놀트 쇤베르크(Arnold Schönberg 1874-1951)는 오스트리아에서 태어나 미국으로 귀화한 작곡가, 음악이론가이자 음악교육가이다. 쇤베르크는 12음 기법을 확립.

43) 이명희, “쇤베르크 조곡과 바하 조곡의 비교분석,” (석사학위논문, 경희대학교), 1992, 47.

44) 파울 힌데미트(Paul Hindemith 1895년-1963년)는 독일 출신. 무조성과 재즈등의 실험을 거쳐 독자적인 길을 개척.

Tonalis, 1942)⁴⁵⁾에서 바흐의 평균율 클라비어 곡집을 바탕으로 한 푸가 가곡집이며⁴⁶⁾ 전반적인 진행은 바로크의 푸가적, 대위 기법 등을 현대적 기법으로 바꾸어 새롭게 구사한 작품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1921년 현대음악만을 연주하는 자신이 창단한 아마르-현악 4중주단(Amar Quartet)에 의해 초연된 String Quartet No. 5 Op. 32 (1923)는 바흐의 음악 양식의 영향, 힌데미트의 개성이 잘 조화된 작품으로 알려진다.⁴⁷⁾

요한 제바스티안 바흐에 대해 음악가들과 일반인들의 관심은 19세기 후반에 현저하게 높아지면서 라이프치히에서 바흐 서거 100주년이 되는 1850년에 ‘바흐 협회’가 창립되었다. 창립 이래 46권의 <바흐 전집>이 간행되기도 했다.

1900년에 ‘신 바흐 협회’가 설립되고, 1904년부터는 <바흐 연감>을 발행하여 많은 음악가의 바흐 연구에 대한 열정과 노력은 끊임없이 이어졌다.

1954년경에는 라이프치히 바흐 자료보관소에서 ‘신 바흐 전집’의 간행이 시작되었으며, 연구자들은 바흐의 기본적인 자료들과 작품들이 재검토되면서 바흐에 대한 새로운 곡들과 사실들이 많이 발견되고 있다. 최근에 발견된 곡 (BWV 1081-1120)들을 보면;

Masses, Latin Church Music BWV 1081-1083, Other Chorale Preludes BWV 1085, Honorific and Incidental Canons BWV 1086, Canons on the First Notes of Goldberg Ground BWV 1087, Passions BWV 1088, Organ Chorales from the Neumeister Collection BWV 1090-1210이다.

바흐의 음악은 현재까지도 일반인들과 음악가들에게 많은 영감을 주고 있으며, 그런 면에서 바흐의 작품 연구는 계속 진행되어야 하며, 그 결과 앞으로 얼마나 많은 작품이 나올지 기대하는 바가 크다.

현재 바흐의 작품번호로 쓰이고 있는 BWV(Bach-Werke-Verzeichnis = Bach Works Catalogue)는 1950년 볼프강 슈미더(Wolfgang Schmieder)⁴⁸⁾가 라이프치히에서 책으로 출판하여 널리 사용되고 있다.

45) 음의유희 (Ludus Tonalis, 1942)는 독일의 작곡가 힌데미트가 1942년에 작곡한 곡. 바흐의 평균율을 현대적으로 해석한 곡.

46) 나주리, “힌데미트의 「음의 유희」와 바하의 「평균율 클라비어 곡집」”, 「음악과 민족」 28 (2004), 202.

47) 안명기, “P. Hindemith 음악에 대한 분석 연구,” (석사학위논문, 창원대학교), 2002, 15.

48) 볼프강 슈미더(Wolfgang Schmieder 1901 - 1990) 그는 독일 음악 사서이자 음악 학자.

2. 바로크 시대 기악 음악의 중요 장르

성악과 춤의 전성기라고 할 수 있는 1600년 이전은 기악을 위한 것으로는 춤곡이나 성악곡을 보조하는 편곡 정도밖에는 없었다. 그러나 바로크 시대에 와서 부터는 그전 시대와 비교하면 성악곡과 동등한 위치로 발전한 시기이며, 기악을 위한 다양한 새로운 형식이 확립되고, 따라서 여러 기악곡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또한, 궁정이나 교회에서 기악 음악에 관한 관심이 고조됨과 동시에 악기가 가지고 있는 음색이나 성능에 대한 작곡가들의 관심도 고조되기 시작했다.

악기의 연주법도 바로크 시대에 진보적인 발전을 이루었다. 그와 함께 소나타(Sonata), 모음곡(Suite), 토카타(Toccat), 협주곡(Concerto), 서곡(Overture), 등 여러 기악 장르가 만들어졌다. 이에 따라 이들의 창조적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정교한 악기들의 개량으로 인해 기악 음악이 빠르게 발전함과 동시에 수많은 명곡이 탄생한 시기이며, 바흐 역시 그 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한 것을 음악사를 통해 알 수 있다. 또한, 안토니오 스트라디바리우스⁴⁹⁾, 바르톨로메오 주세페 파르네리⁵⁰⁾, 안드레 아마티⁵¹⁾ 등의 명기들이 제작되었으며 뮐리의 ‘왕의 24대의 바이올린’ 등의 직업 오케스트라도 생겨났다.

1) 소나타

소나타의 어원은 소리나다, 울리다, 연주하다 라는 뜻의 이탈리아어인 sonare 에서 유래했으며, 중세 이후부터 존재했던 프랑스의 세속노래인 샹송⁵²⁾이 이탈리아에 전해지며 발전되었다. 소나타는 성악곡 칸타타(Cantata)와 구분, 대립 되는 기악곡을 의미하였다.

바로크 시대 소나타 대부분은 트리오 소나타라는 양식으로 쓰였다. 2개의 선율과 이것을 화성적으로 보조해주는 통주저음부를 포함하는 독립된 3 성부로 작곡

49) 안토니오 스트라디바리(Antonio Stradivari 1644-1737)는 바이올린, 첼로, 기타, 비올라, 하프와 같은 악기를 제작한 이탈리아의 현악기 장인.

50) 바르톨로메오주세페 파르네리 (Bartolomeo G. Guarneri 1698-1744) 이탈리아의 악기 제작 명가 파르네리 가문의 세 번째 제작자.

51) 안드레 아마티 (Andrea Amati 1505-1577)이탈리아 크레모나 지방에 기점을 두고 바이올린 제작.

52) 샹송(프랑스어: Chanson)은 프랑스어로 ‘노래’, ‘가요’라는 뜻.

되었다. 일반적으로 2 성부 선율은 고음악기인 바이올린이나 관악기가 맡고, 통주저음 부분은 1 성부를 맡은 첼로와 통주저음을 맡은 악기가 연주하였다. 그래서 트리오라는 명칭과는 달리 3명이 연주자가 아니라 바로크 트리오 소나타를 연주할 때는 연주자가 4명이 되는 것이다.

이 시대의 중요한 소나타 작곡가에는 영국의 헨리 퍼셀⁵³⁾ 프랑스의 프랑수아 쿠프랭, 이탈리아의 안토니오 비발디, 도메니코 스카를라티⁵⁴⁾, 독일의 요한 쿠나우, 게오르크 필리프 텔레만⁵⁵⁾, 헨델, 바흐 등이 있다. 코렐리는 바로크 “기악에서 소나타”의 구조를 완성 시켜, 그것은 후속하는 작곡가에 대한 표준이 되었다.

17세기 후반, 조반니 바티스타 비탈리⁵⁶⁾와 아들, 아르칸젤로 코렐리 등에 의하여 교회 소나타(Sonata da Chiesa), 그리고, 프랑스나 독일을 중심으로 실내 소나타(Sonata da Camera)가 생겼다.

(1) 교회 소나타(Sonata da Chiesa)

교회 소나타는 바로크 시대에 애호된 기악곡이며 대위법적인 서법을 중심으로 한 기악곡으로, 느린 악장 - 빠른 악장 - 느린 악장 - 빠른 악장인 4악장 구성이 표준이다.

교회 소나타는 17세기에 칸초네에서 유래했으며 칸초네는 후에 푸가⁵⁷⁾로 발전되었다. 이런 이유로 교회 소나타가 푸가와 깊은 연관성이 있으며, 빠른 악장들에서 푸가적인 형식이 적용되는 경우가 많다.

원래 교회 소나타는 예배 특정 부분에서 통주저음으로 오르간을 동반하며 연주하게 된 것이었다. 각 악장은 실내 소나타와 달리 원칙적으로 세속적인 무곡 등의 리듬에 의하지 않은 추상적인 기악곡으로 쓰여 있다.

형태로는 통주저음을 갖는 트리오 소나타와 초기에는 친근감을 보였으나 후에는 각종 악기를 위한 것도 작곡되었다. 바흐의 무반주 바이올린 소나타 제2번 가

53) 헨리 퍼셀 (Henry Purcell 1659-1695)은 영국의 작곡가.

54) 도메니코 스카를라티(Domenico Scarlatti 1685-1757)는 이탈리아 출생의 작곡가이자 하프시 코드 연주자.

55) 게오르크 필리프텔레만(Georg Philipp Telemann 1681-1767)은 독일의 바로크 시대의 혁신적인 작곡가로 교회음악, 마드리갈, 오페라를 포함한 많은 극음악과 성악음악을 작곡.

56) 조반니 바티스타 비탈리(Giovanni Battista Vitali, 1632-1692)는 이탈리아의 작곡가·바이올린 연주자.

57) 푸가(이탈리아어 : fuga)는 모방 대위법 적인 악곡 형식의 하나.

단조(바흐 BWV 1003)는 교회 소나타 양식의 유명한 예이다.

(2) 실내 소나타

실내 소나타(Sonata da Camera)는 교회 소나타에 대립하는 말이며 통주저음으로 첼발로를 동반하며 <알레망드-쿠랑트-사라방드-지그-가보트> 등으로 이루어졌으며 현재는 바로크 시대의 모음곡과 같은 뜻으로 쓰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특히 실내악 적인 편성으로 한 것을 말하는 것이 보통이다. 본래 귀족들의 모임 방(연회장)에서 연주하기 위한 장르로서, 이탈리아에서 발생하였으며, 춤곡 또는 그와 비슷한 것을 연속시킨 형태를 취한다. 대표적인 작품은 코렐리의 트리오 실내 소나타 (Chamber Sonatas Op. 2, 4) 이 두 가지 소나타 특징들이 혼합되어 느림-빠름-느림-빠름 4악장 형식으로 표준화되어 이후 고전 시대, 낭만 시대로 이어진다.

2) 협주곡

바로크 이후 현대에 이르기까지 즐겨 작곡되며 연주되고 있는 협주곡은 바로크 시대에 합주 협주곡에서 발전되었다. 협주곡은 오늘날 연주회에 가장 중요한 지위를 차지하고 있는 장르 중 하나이다. 협주곡 또는 콘체르토는 경쟁하다의 라틴어 콘체르타레(Concertare)에서 유래되고 발전하여 이후 이탈리아어인 콘체르토(Concerto)로 바뀌면서 현재도 콘체르토(Concerto)로 불리고 있다.

콘체르토는 바로크 시대의 가장 중요한 관현악 형식 중 하나로서 관현악단이 독주자 또는 독주자 그룹 사이의 대조와 경쟁되는 형식이다. 콘체르토는 바로크 17세기 중기의 가장 중요한 관현악 장르가 되었으며, 후기바로크, 고전, 낭만 시대를 거치면서 크게 발전했다.

협주곡은 보통 3악장 형식이며, 1악장은 소나타 형식, 2악장은 3부 형식이나 변주곡, 3악장은 소나타나 론도형식으로 진행된다. 협주곡은 합주 협주곡(Concerto Grosso)과 독주협주곡(Solo Concerto)으로 분류된다.

(1) 합주 협주곡(Concerto Grosso)

하나의 독주 악기를 위한 것이 아니라 둘 이상의 독주 악기들을 위한 합주 협주곡은, 17세기 초반에 등장해서 바로크 시대를 대표하는 기악곡으로 자리 잡았던 중요한 기악 장르이다.

코렐리가 발전시킨 이 합주 협주곡(Concerto Grosso)은 콘체르티노 라는 작은 그룹과 리피에노⁵⁸⁾(또는 튜티)라는 큰 그룹과 대비시키며 진행된다. 합주 협주곡은 안토니오 비발디에게도 영향을 끼쳐서 그가 유명한 <조화의 영감>(Op. 3)⁵⁹⁾협주곡집을 합주 협주곡 형식으로 작곡하기도 했다.

코렐리의 작품 “12곡의 합주 협주곡 Op. 6,”은 1712년에 작곡된 최초의 합주 협주곡이다. 그의 기법은 당시의 이탈리아 바로크 기악의 확실히 대표적인 지위를 차지한다고 볼 수 있으며, 당시의 많은 음악가가 코렐리 양식을 본보기로 삼고 작품을 썼다. 바흐는 독주 악기들을 사용하여 브란덴부르크 협주곡을 작곡했으며, 헨델은 “현을 위한 합주 협주곡 Op. 6” “합주 협주곡 Op. 3”등 30여 합주 협주곡 작품들이 있다.

(2) 독주협주곡(Solo Concerto)

볼로냐(Bologna) 악파⁶⁰⁾의 주세페 토렐리⁶¹⁾는 합주 협주곡의 원리를 독주 악기에 적용 시키며, 독주 악기와 관현악의 음향을 대조시키는 등 독주협주곡 발전에 가장 중요한 개혁을 이룩했다.

독주협주곡은 독주 악기의 기교를 더욱 돋보이게 하는 선율과 관현악의 반주가 서로 간의 대립과 경쟁, 반복의 형식으로 이루어지며, 독주 악기의 음향을 전체 관현악 음향과 조화롭게 대조시키는 양상을 띤다. 그것은 독주 악기와 관현악을 위한 소나타이며 독주협주곡의 리토르넬로 형식⁶²⁾을 사용하기 시작하였는데,

58) 리피에노는 17~18세기의 음악 가운데 합주 협주곡에서 독주자 그룹의 연주를 반주하는 합주자 그룹의 연주자들.

59) 조화의 영감(L'Estro Armonico) 또는 <화성의 영감 >은 안토니오 비발디가 만든 바이올린, 첼로를 포함한 다양한 편성을 위한 12개의 협주곡을 모은 작품.

60) 볼로냐(Bologna)악파는 북이탈리아의 볼로냐에서 17세기 후반에서 18세기 전반에 걸쳐, 특히 기악의 확립에 공헌한 음악가들.

61) 주세페 토렐리(Giuseppe Torelli 1658 - 1709)는 바로크 시대에 활동했던 이탈리아의 바이올리니스트이자 작곡가로, 볼로냐 악파로 분류되는 음악가.

62) 리토르넬로 형식(Ritornello)이란 악곡의 형식의 하나로, 합주와 독주가 되풀이되는 형식.

이 형식은 1악장과 3악장에 전형적으로 나타난다.

토렐리는 독주협주곡에서 합주 협주곡과 달리 리피에노와 대비시킨 것은 독주 악기이다. 독주 악기에 따라 피아노 협주곡, 바이올린 협주곡 등 독주 악기 이름으로 불린다.

토렐리의 바이올린 협주곡들은 빠름-느림-빠름으로 이루어졌으며, 이러한 3악장은 바로크 독주협주곡의 표본을 보여준다. 이 배치는 후일의 작곡가들에게 모델이 되어 이 형식이 널리 사용하게 된다. 또한 비발디(1678-1741)는 독주협주곡의 3악장 형식을 확고히 확립하며, 그것을 대규모의 형식으로 발전시켜 350개의 독주협주곡을 작곡한다. 비발디의 형식을 이어받은 사람으로는 주세페 타르티니⁶³⁾, 헨델, 요한 제바스티안 바흐, 텔레만 등을 들 수 있다.

3) 서곡

서곡은 오페라나 오라토리오 또는 모음곡 등의 공연이 시작되기 전에 오케스트라가 연주하는 하나의 악장으로 이루어진 관현악곡이다. 바로크 시대에 서곡이 처음 등장했을 때 시포니아(Sinfonia)는 이탈리아가 기원이고 서곡(Overture)은 프랑스가 기원인데 이름들은 함께 쓰여졌다. 서곡은 앞으로 전개될 극이나 내용에 대해 미리 암시하기도 하고 또는 전체적인 내용을 소개하는 역할도 했었다. 그러나 지금의 서곡처럼 하나의 독립적인 작품은 아니었다.

초기 오페라 서곡들은 이름도 다양할 뿐 아니라 음악적으로도 여러 특징을 보여준다. 그중 프랑스풍의 느림-빠름-느림으로 된 서곡과 이탈리아풍의 빠름-느림-빠름으로 된 서곡들로 두 가지 대표적인 유형을 보여준다.

(1) 프랑스풍 서곡

프랑스풍 서곡은 장 바티스트 뤼리⁶⁴⁾에 의하여 처음으로 확립되었는데, 그는 발레 알시디아네에서 ‘프랑스풍 서곡’이라는 새로운 유형의 서곡을 처음 선을 보

63) 주세페 타르티니(Giuseppe Tartini, 1692-1770)는 이탈리아 태생이며 바로크 시대에 활동한 남부 유럽의 바이올리니스트이자 음악 교육자이며 작곡가.

64) 장 바티스트 뤼리(Jean Baptiste Lully 1632-1687)는 이탈리아에서 태어난 프랑스 작곡가로, 악기 연주자 및 프랑스 바로크 음악 스타일의 대가.

였다.

릴리 서곡의 특징은 제1부는 아다지오(Adagio), 제2부는 알레그로(Allegro) 구성으로 반복되는 2부분 형식이며 대위법적인 음악이 전개되고, 느린 부분은 장중하고 붓점 리듬이 강조되는 구조이다. 그러나 프랑스풍 서곡에서 코다(Coda) 부분을 독립된 한 부분으로 해석하여, 느림-빠름-느림 구조로 해석하는 견해도 있다. 프랑스풍 서곡은 프랑스풍 칸초네를 말하며, 17세기 바로크 시대에 오페라 분야에서 유행했을 뿐만 아니라, 오페라 이외에 모음곡의 서곡으로도 즐겨 사용되었으며, 모음곡 자체가 서곡이라는 말로 불리기도 했다.

바흐의 4개의 관현악 모음곡은 이러한 형식의 대표적인 사례로, 그는 4곡의 관현악 모음곡 제1-4번 첫 악장에 모두 프랑스풍의 서곡을 사용했다. 그러나 1750년 이후 소나타와 교향곡의 두드러진 발전에 맞추어 프랑스풍 서곡은 서서히 자취를 감추게 되었다.

(2) 이탈리아풍 서곡

나폴리아파의 창시자인 알렉산드로 스카를라티⁶⁵⁾가 17세기 말에서 18세기 초까지 100여 개의 오페라를 작곡하며 활발하게 활동하였는데, 1696년 스카를라티는 Antonio Maria Abbatini⁶⁶⁾ 작곡의 Dal male il bene (From Ill comes Good)⁶⁷⁾ 오페라의 서곡을 작곡, 발표하면서 이탈리아풍 서곡이 싹트기 시작하였다. 당시 이탈리아 초기의 베네치아의 서곡형식인 느림-빠름의 2부분 구조를 사용했으나 17세기 후반에 스카를라티에 의해서 빠름—느림—빠름의 3부분 서곡형식으로 확립되며 이탈리아풍 서곡의 표본이 되었다.

이탈리아풍 서곡은 신포니아 라고도 불렸는데, 신포니아는 3부분들이 규모가 점차 확대되면서, 후에 그것은 소나타 형식으로 발전되며, 고전 시대의 세 악장의 교향곡으로 발전하는데 밑거름이 되었다.

이후 연주회 연주용으로 작곡된 서곡들도 등장하기도 했으며, 아예 오페라 등

65) 알렉산드로 스카를라티(Alessandro Scarlatti, 1660-1725) 이탈리아 바로크 전성기의 대표적 작곡가. 나폴리아파의 대표자. 초기의 이탈리아 칸타타를 정립시킨 사람으로도 평가받음.

66) Antonio Maria Abbatini 1595년 또는 1609년 또는 1610년 ? - 1677년 또는 1679년. 주로 로마에서 활동한 이탈리아 작곡가.

67) Dal male il bene는 1654년 작곡됐으며, 최초의 희극 오페라 중 하나이고 최종 앙상블을 도입했다는 점에서 역사적으로 중요하다.

에 부속하지 않고 독립하여 작곡된 서곡도 있다. 오늘날 오케스트라 음악회에서 는 도입부에 ‘서곡’을 한 곡 선정해 연주하는 것이 일반화, 관례로 돼 있다.

4) 모음곡(Suite)

모음곡은 이미 중세 말의 사교춤이나 민속춤에서 시작하였으나, 바로크에 들어서며 당시 춤곡을 위한 반주 역할이었던 곡들이 차차 감상을 위한 음악으로 발전하게 되었고, 각 나라의 춤곡들을 모아서 연주하는 ‘모음곡’이라는 기악곡 양식으로 정립되었다. 바로크 모음곡은 이러한 여러 나라의 춤곡을 한데 모아놓은 작품이기 때문에 모음곡은 국제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바로크 모음곡의 형식은 17세기 중엽 독일의 작곡가 요한 야콥 프로베르거⁶⁸⁾에 의하여 확립, 발전되었으며 바로크 후기에는 음악 양식적으로 보편화 됨에 따라 바로크 시대의 가장 중요한 기악 형식 중 하나가 되었다.

바로크 모음곡들은 르네상스 형식인 2부분 형식을 따랐으며, 각 악장마다 박자, 리듬, 템포, 악상 등이 대조를 이루면서 같은 조성(Key)으로 대부분 4악장 구성으로 돼 있으나, 4악장 외에도 가보트, 미뉴에트, 샤콘느, 부레 등이 3악장과 4악장 사이에 들어가기도 하면서 4-8 악장으로도 작곡이 되었다.

표준적인 모음곡으로는

- 알르망드(allemande)-독일, 모데라토 4/4박자,
- 쿠랑트(corrente)-프랑스, 모데라토 3박자,
- 사라방드(sarabande)-스페인, 안단테 3박자,
- 지그(gigue)-영국, 6/8 또는 9/8박자로 이루어진다.

모음곡의 절정은 바흐의 작품에서 나타나는데, 바흐는 다양한 악기를 위한 작품들인 바흐의 무반주 첼로 모음곡⁶⁹⁾이나 영국 모음곡, 관현악 모음곡 등에서 바

68) 요한 야콥 프로베르거(Johann Jakob Froberger 1616-1667)는 17세기에 활약한 독일의 바로크 작곡가이자 건반악기 연주자.

69) 바흐의 무반주 첼로 모음곡: 바흐의 쾨텐 궁정시절인 1717년에서 1723년 사이에 작곡되었을 것이라고 추정.

로크 모음곡의 특성이 잘 나타나 있다.

그리고 헨델의 ‘수상 음악’,⁷⁰⁾ ‘왕궁의 불꽃놀이’⁷¹⁾같은 모음곡들도 하나의 주제를 매개로 한 특징이 잘 나타나 있는 곡들이다.

바흐와 헨델 외에 모음곡의 주요 작곡가에는 독일의 요한 파헬벨,⁷²⁾ 요한 크리거,⁷³⁾ 요한 캐스퍼 피셔,⁷⁴⁾ 요한 쿠나우,⁷⁵⁾ 게오르크 뵘, 게오르크 무파트,⁷⁶⁾ 영국의 헨리퍼셀,⁷⁷⁾ 프랑스의 자크 샹피옹 드상보니에르,⁷⁸⁾ 프랑수아 쿠프랭,⁷⁹⁾ 장-필리프 라모⁸⁰⁾ 등이 있다.

바로크 후기에 모음곡이 전성기를 이루었다가 점점 사라지면서 다른 춤곡들은 차츰 자취를 감추게 됐으나, 미뉴에트만은 고전 시대의 교향곡이나 실내악곡에 그 흔적이 남아있게 된다.

70) 수상 음악(Water Music-HWV 348-350)은 1717년 7월 17일 영국 템즈 강에서 열린 국왕의 연회에서 연주하기 위해 헨델이 작곡.

71) 왕궁의 불꽃놀이(Music for the Royal Fireworks, HWV 351)는 1749년 헨델이 작곡한 모음곡

72) 요한 파헬벨 (Johann Pachelbel 1653-1706)은 바로크시대 독일의 작곡가이자 오르가니스트.

73) 요한 크리거(Johann Krieger 1651 - 1735)은 오르간 주자 겸 작곡가.

74) 요한 캐스퍼 피셔(Johann Casper Ferdinand Fischer 1656-1746)는 보헤미아 혈통으로 짐작되는 독일 바로크 작곡가.

75) 요한 쿠나우 (Johann Kuhnau, 1660-1722)는 바로크 중기의 대표적인 독일의 작곡가, 오르가니스트, 쳄발로 주자.

76) 게오르크 무파트 (Georg Muffat (1653 - 1704)는 프랑스 태생의 독일 작곡가, 오르간 연주자

77) 헨리퍼셀 (Henry Purcell (1659년-1695)은 영국의 작곡가.

78) 자크 샹피옹 드상보니에르 (Jacques Champion Chambonnières 1602-1672)는 바로크 시대의 프랑스의 작곡가 바로크 음악의 클라브생 악파의 창시자.

79) 프랑수아 쿠프랭 (François Couperin 1668-1733)은 바로크 시대 프랑스의 작곡가이자 건반악기 연주자.

80) 장-필리프 라모 (Jean-Philippe Rameau 1683-1764)는 프랑스의 작곡가.

3. 바로크 시대 플루트와 바흐의 8개의 플루트 소나타들

1) 바로크 시대 플루트

바로크 시대에는 플루트보다 리코더 소리를 더 선호하였으며, 바로크 시대 때에 최전성기를 맞아, 플루트보다 더 널리 쓰였었다. 리코더 대신 가로 플루트(Flauto Traverso)가 ‘플루트’라는 이름으로 독자지하게 된 것은 리코더가 더 큰 음량과 더 화려한 음색을 선호하는 시대적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고, 리코더보다 덜 기계적이며 많은 바람량을 이용해서 다이내믹 조절이나 조성적 변화에 적합한 가로 플루트에 밀려나면서 일어난 일이었다.

그러나 바로크 당시의 가로 플루트는 그저 둥근 나무관에 6개의 구멍이 나 있는 악기로, 마우스피스가 원형으로 된 단순한 형태였으며 D조 악기라는 한계를 가지고 있었다. 이 D조의 플루트 음역은 취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음을 조절하는데 달려있었으며, 한 옥타브 위의 소리를 내려면 기류의 폭을 반으로 줄여야 하므로, 특히 높은 음역대에서는 세련된 소리를 내는데 쉽지 않았다. 이러한 바로크 초기 플루트는 D#음을 내는 키 장치 같은 게 없는 구조 때문에, 모든 조성으로 연주와 반응계 선율은 불확실했다.⁸¹⁾

가로 플루트의 이러한 단점들은 바로크 시대 관악기의 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한 프랑스의 오토테르(Hotteterre)⁸²⁾일가에 의해 보완, 개발된 것으로 추정된다. 그들은 한 개의 관으로 되어있던 가로 플루트를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도록 만들었다. 플루트 세 부분 중에 가장 끝부분(Foot Part)에 ‘키(Key)’라고 하는 것을 처음으로 플루트에 장치했는데, 이 키 장치로 인해서 이전의 플루트로는 내기 힘들었던 D#음의 연주가 훨씬 수월해졌다.⁸³⁾

18세기 플루트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극복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은 요한 요하임 크반츠⁸⁴⁾이다. 플루트 아마추어로서 상당한 연주 실력을 갖추고 있

81) Johann Joachim Quantz, 「플루트 연주의예술-18세기입문서」, 연세대학교 음악연구소 번역 (음악세계, 2011), 40.

82) 자끄-마르탱 오토테르, (Jacques Martin Hotteterre 1674-1763) 프랑스의 작곡가이자 플루티스트.

83) 박해상, “플루트의 구조적 변천 과정에 관한 고찰,” (석사학위논문, 동덕여자대학교), 2004, 14.

84) 요한 요하임 크반츠(Johann Joachim Quantz, 1697-1773)는 후기바로크 시대의 독일 작곡가, 플루트 연주자 및 플루트 제작자였다.

던 프러시아 프리드리히 대제(Frederich The Great)의 플루트 선생이기도 한 크반츠는 리드리히 궁정에서 일하면서, 300여 곡의 플루트 협주곡과 200여 곡의 플루트 소나타를 작곡했으며, 악기 개량에도 힘썼다.

크반츠는 연주자들이 튜닝을 좀 더 정확하게 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본관과 연결되는 윗 관의 길이를 조절할 수 있도록 개발하였다. 또한, 악기의 음 높낮이를 변형시킬 수 있는 장치로, 플루트 상단 부분에 나사로 된 마개 장치를 하였는데⁸⁵⁾, 나사를 돌려 악기의 피치를 재조정하는 장치로서 오늘날까지 사용되고 있다.

그는 플루트의 기능과 연주에 대해서 논문을 저술하기도 했는데, 그중에서 1751년에 쓰고, 1752년에 처음 출판된 “On Playing the Flute(플루트 연주하는 것에 대하여)”⁸⁶⁾ 연주법은 18세기 음악 사상, 연주 연습, 양식에 관한 가장 중요하고 깊이 있는 논문 중 하나로 오랫동안 인정받아 왔다. 여기에는 표현, 장식, 억양, 강도, 튜닝, 카덴자, 콘서트마스터의 역할, 무대 동작, 등이 있으며 특별한 관심사는 다양한 템포를 맥박과 연계한 테이블로, 오늘날의 음악가들이 바로크 음악의 정통 연주, 템포를 해결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현재 악보로 존재해있는 바로크 시대 플루트로 지칭되는 악기는, 가로 플루트와 리코더를 의미한다. 예를 들면, 요한 제바스티안 바흐의 총 6곡으로 이루어진 브란덴부르크 협주곡 중에서 제5번은 유일하게 솔로 플루트가 사용됐는데, 여기서 말하는 플루트는 개량된 가로 플루트를 의미한다. 반면에 제2, 4번 협주곡에 나오는 플루트는 현재 우리가 말하는 가로 플루트가 아닌 리코더를 의미한다.

바흐가 선호하는 실내악 악기는 바이올린 다음으로 가로 플루트(Traverso Flauto)로 알려졌다. 그러나 오늘날 그가 이 악기를 위해 얼마나 많은 음악을 작곡했는지는 많은 바흐 연구자들이 노력해오고 있지만, 발굴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85) 박해상, 전계서, 16.

86) On Playing the Flute은 요한 요하임 크반츠 1751년에 쓰고, 1752년에 처음 출판.

2) 바흐의 8개의 플루트 소나타

바흐의 8개의 플루트 소나타는 모두 J. S. 바흐가 1717-1723년경 쾨텐의 궁정 악장으로 재직하고 있을 시기에, 쾨텐은 칼뱅주의 지역이어서 바흐의 주된 업무는 종교음악보다는 세속적인 곡들을 많이 작곡하게 되었다. 이 시기에 합주곡, 실내악, 협주곡들을 포함해 8개의 플루트 소나타들도 작곡되었는데, 그것들은 유일한 솔로곡인 무반주 플루트를 위한 파르티타와 4곡의 플루트와 쳄발로를 위한 소나타, 3곡의 플루트와 통주저음을 위한 소나타이다. 이것들은 모두 가로 플루트(Traverso Flauto)⁸⁷⁾를 위한 작품들이다.

바흐가 남긴 무반주 소나타는 모두 세 종류 악기를 위한 것인데, 무반주 첼로 모음곡(Unaccompanied Cello Suites BWV 1007-1012), 무반주 바이올린 소나타와 파르티타 (Sonatas and Partitas for solo Violin, BWV 1001-1006), 그리고 무반주 플루트 파르티타 (J. S. Bach Partita a minor for solo Flute BWV 1013)가 그것이다.

플루트 무반주 파르티타 (BWV 1013) 는 알르망드(Allemande)-쿠랑트(Corrente)-사라방드(Sarabande)-부레 앙글레즈(Bourrée Anglaise)의 4악장으로 구성된 모음곡으로 전형적인 실내 소나타다. 이 플루트 무반주 파르티타 연주에 있어서, 연주자를 힘들게 하는 것 중의 하나는 숨 쉬는 호흡 지정이 쉽지 않다는 것인데, 악보에 쉽표가 없는 관계로 프레이즈를 분석하여, 합리적인 호흡의 안배가 가장 중요한 문제로 드러난다.

Flute와 쳄발로를 위한 소나타<Sonata For (Traverso) Flute and Cembalo> : g minor(BWV 1020), b minor(BWV 1030), E b Major(BWV 1031), A Major (BWV 1032)는 빠름-느림-빠름의 3악장으로 되어있으며, 곡 대부분이 악장 내에서 근친 조로의 전조가 이루어지는 것은 후기바로크 소나타의 특징이다.

이 소나타들은 교회 소나타와 실내 소나타의 중간 형태로 볼 수 있다. g minor(BWV 1020)는 바로크 협주곡의 영향을 받아 1악장에서 리토르넬로 형식(Ritornello Form)을 가지며, b minor(BWV 1030)도 2악장에서 플루트와 쳄발

87) Traverso Flauto :가로로 부는 플루트를 말하며 현대 Flute의 전신이다. 17세기 후반부터 독주 및 합주 악기로 널리 사용되었다.

로의 대조적인 진행으로 바로크 협주곡의 느낌을 준다.

E♭ Major(BWV 1031)는 바흐의 위작인지 여부를 놓고 논란이 있는 곡이기도 하다. 2악장의 시칠리아풍의 서정적인 멜로디가 유명하다.

BWV 1032는 복잡한 과거를 가지고 있다. 바흐는 자신이 이전에 썼던 음악의 페이지 맨 아래쪽에 남아있는 빈 보표에 자기 작품을 기록했다. 나중에 첫 번째 악장의 많은 마디와 함께 원고에서 페이지가 손실되었다. 그래서 이 부분의 재건이 필요했다. 소나타 전체는 아마도 이전 작품의 재건일 것이다.⁸⁸⁾

플루트와 통주저음을 위한 소나타 <Sonata for (Traverso) Flute and Basso Continuo> : C Major(BWV 1033), e minor(BWV 1034), E Major(BWV 1035)는 느림-빠름-느림-빠름의 4악장으로 된 교회 소나타이다.

그러나 C Major(BWV 1033)는 4악장에 미뉴에트(Menuet), E Major(BWV 1035)는 3악장에 시칠리아노(Siciliano)가 사용됨으로써 실내 소나타가 혼합되었음을 알 수 있다.

바흐의 Flute Sonata를 도표로 정리하면 <표 1>과 같다.

<표 1> 바흐의 Flute Sonata를 도표

작품명	BWV	종류	반주형태
Partita a minor for Solo Flute	1013	실내 소나타	무반주
Sonata g minor	1020	실내, 교회 소나타	Cembalo (Harpsichord)
Sonata b minor	1030		
Sonata E♭ Major	1031		
Sonata A Major	1032		
Sonata C Major	1033	교회 소나타	Basso Continuo
Sonata e minor	1034		
Sonata E Major	1035		

88) [https://www.bachvereniging.nl/en/bwv/bwv-1032/Flute Sonata in A major /Netherlands Bach Society#p1](https://www.bachvereniging.nl/en/bwv/bwv-1032/Flute%20Sonata%20in%20A%20major%20-%20Netherlands%20Bach%20Society#p1)(2021년 6월 23일 접속)

4. J. S. Bach Sonata for Flute and Basso Continuo in C Major, BWV 1033에 관한 연구 분석

바흐의 Flute Sonata BWV 1033은 종교음악보다 세속적인 음악들이 많이 작곡되던 1720년경 쾨텐에서 작곡되었으며, 각 악장은 느리게-빠르게-느리게-빠르게의 4악장으로 구성되어 교회 소나타 형식이다. 마지막 악장은 두 개의 미뉴엣(Menuet)으로 되어있어서 소나타보다는 모음곡같이 5악장으로 연주되는 형식이기도 하다.

플루트 선율은 동형진행, 반복으로 이어져 나가고, 리듬은 복잡하지 않고 간결하고 명확하다. 바소 콘티뉴(Basso Continuo)는 화음 양식, 분산화음 양식으로 되어있으며, 플루트 선율과 바소 콘티뉴(Basso Continuo) 두 성부 간의 진행은 병진행과 반진행이 자주 나타난다. 조성은 C Major의 관계 조성으로 전조 하고, 악곡은 정격종지에 의해 마치는 것이 특징이다.

BWV 1033 소나타는 마지막 4악장이 미뉴에트로 되어있는 것이 바흐의 다른 작품에서 볼 수 없는 형식이기 때문에, 이 작품의 진위성이 현재까지도 많은 학자에 의해 의견이 있음을 보게 된다.

또한, 음악학자와 음악가들은 바흐가 플루트의 특성에 대해 잘 이해하지 못했을 것이라는 설⁸⁹⁾에 대해서 Robert L. Marshall⁹⁰⁾은, 그의 글에서 바흐는 플루트의 특성에 둔감하기는커녕, 이 악기를 위한 새로운 관용구를 고안하기 위한 노력에서 정상적인 그의 음악 스타일에서 벗어났다⁹¹⁾라고 쓰고 있다.

BWV 1033 악장별 구조는 <표 2>와 같다.

89) Christopher Addington, "Johann Sebastian Bach," 「The Musical Quarterly」 71 (1985), 264.

90) Robert L. Marshall은 브랜다이스 대학의 사차르 음악 교수이며 Louis, Frances 및 Jeffrey Sachar 음악 명예 교수.

91) Christopher Addington, 전제서, 264.

〈표 2〉 J. S. Bach Flute Sonata BWV 1033 악장별 구조

악 장	조 성	박 자	빠 르 기	형 식	마 디 수
제 1악장	C Major	4/4	Andante & Presto	2부 형식	26
제 2악장	C Major	3/4	Allegro	2부 형식	48
제 3악장	a minor	4/4	Adagio	3부 형식	14
제 4악장	C Major - a minor	3/4	Menuet I, II	복합 3부 형식	16+28

1) 제 1악장

1악장은 4/4박자로 이루어졌으며 2부 형식 (A+B) 으로 C Major의 조성을 가진다. Andante로 시작하는 첫 번째 악장은 Flute 파트의 선율 전체가 16분음표의 음형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10마디 셋째 박자부터 Presto로 빠르게 전환된다.

1악장 형식 구조는 <표 3>과 같다.

〈표 3〉 1악장 형식 구조

구조	박자	마 디	빠 르 기	조 성
A	4/4	1-10	Andante	C Major
B		11-26	Presto	

A부분 (1-10마디)는 플루트 선율이 4마디 넷째 박자를 제외하고는 전체 16분음표 음형으로 진행되고, 첫째 마디 플루트 선율은 2박자를 기준으로 2도 상행 동형진행을 보여준다.

1-2마디에서는 Basso Continuo 상성부 아래 4분음표들은 플루트의 16분음표로 이루어진 각 박자 첫 음과 함께 8도 음정을 유지하며 병진행 선율을 진행한다. 이때 Basso Continuo 4분음표는 화음으로 플루트 선율을 받쳐준다. 역시 1-2마디에서 플루트 파트와 Basso Continuo의 외성 파트는 서로 반진행 하고 있다.

<악보 1 참조>

〈악보 1〉 1-2마디

〈악보 2〉에서 보듯이 4마디 넷째 박자는 유일하게 16분음표만이 아닌 점 8분음표와 16분음표로 이루어졌다. 악보에서 점 8분음표는 트릴이 없지만 대부분 연주자들은 트릴을 하며 약간 rit.로 다음 마디를 이어가기도 한다. <악보 2 참조>

〈악보 2〉 4-6마디

10마디에서는 C Major V-I로 정격종지⁹²⁾되며 Presto B 파트로 들어간다. Basso Continuo 하성부는 10마디부터 C Major 으뜸음을 25마디까지 계속 지속하여 플루트의 화려한 진행을 돋보이게 한다. <악보 3 참조>

〈악보 3〉 10-11마디

92) 정격종지(Authentic Cadence)란 바른마침이라고도 하며, V도 화음에서 I도 화음으로 가는 종지.

플루트 파트 12-14마디는 10도 도약, 13 - 14마디 2도 상행, 동형진행, 17-19마디는 6도 도약과 각 마디 첫 음으로 2도 하행 동형 진행함으로 선율 폭이 넓어지며 중간중간 16분음표의 화려한 진행으로 빠른 변화는 A 부분과는 확연히 다른 분위기를 보여주는 부분이다. 15 - 19마디에서는 순차적 하행진행 (C, B \flat , A, G, F, E)을 하는데, 연주자는 하행하는 중심음을 인지하여 강조하도록 연주하여 하행 느낌을 나타내도록 한다. <악보 4 참조>

<악보 4> 12-19마디

Presto B 부분 8분음표에 스타카토가 없지만, 편집자에 따라서 8분음표에 스타카토를 표기한 악보도 있다. 예를 들면, 악보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8분음표를 스타카토로 연주함으로써 경쾌한 느낌을 줄 수 있다. (출판사: International Music Company, 편집자는 Jean Pierre Rampal) <악보 5 참조>

<악보 5> 10-13마디

21-24마디 셋, 넷째 박자들이 순차 하행진행 선율로, 종지를 향하여 가는 느낌을 잘 나타내고, 24마디부터 플루트 선율이 16분음표에서 8분음표, 4분음표로 음가가 확대되어 전환되며, 리듬적으로 리타르단도(Rhythmic rit.)가 되면서 종지 느낌을 잘 나타낸다.

마지막 25마디와 26마디의 플루트의 선율은 바소 콘티뉴(Basso Continuo)의 상성부 위 음들과 함께 같은음(Unison)으로 진행하며, C Major V, 반종지⁹³⁾로 1악장을 끝맺는다. 반종지와 rit.로 인하여 바로 2악장으로 가는 연결구 역할을 한다. <악보 6 참조>

<악보 6> 21-26마디

93) 반종지(Half Cadence)란 반마침이라고도 하며, V도 화음의 대리 화음이 아닌, I도, IV도, vi도, ii도 화음에서 V도 화음으로 가는 종지.

2) 제 2악장

C Major 조성으로 3/4박자인 2악장은, 간결한 화음 위의 Allegro 빠르기로 진행되는 밝은 악장으로 A-B 2부 형식이다. Flute의 선율에서 16분음표의 빠른 진행이 순차적으로 상행 또는 하행진행하는 선율과 Basso Continuo 파트의 위 성부는 4분음표, 하성부에는 8분음표의 분산화음에 의한 리듬 음형의 오스티나토(Ostinato)⁹⁴⁾ 움직임이 전반에 걸쳐 진행된다.

2악장 형식 구조는 <표 4>와 같다.

<표 4> 2악장 형식 구조

구조	박자	마디	빠르기	조성
A	3/4	1-20	Allegro	C Major
B		21-48		G Major- C Major

1-4마디까지 16분음표로 빠르고 규칙적으로 주제 악절이 나온다. 이때 각 마디 첫 음들 C, D, E는 순차진행하고, 이 선율은 B 부분에서 완전 5도에 이어 장6도로 다시 반복한다.

1-3마디 Basso Continuo 상성부 리듬 형, 이 계류음⁹⁵⁾을 포함한 4분음표 리듬 형은 악곡이 마칠 때까지 반복되거나 변형되어 나타난다. <악보 7 참조>

94) Ostinato는 어떤 일정한 음형을 동일 성부에서 반복하는 것

95) 계류음은 코드가 바뀌었는데도 앞 코드의 화성음이 그대로 뒤에 나오는 코드에 머물러 있는 비화성음을 말하는데 다음 화음에서 불협화를 이룬 뒤, 2도 하행 또는 2도 상행해결하는 비화성음.

<악보 7> 1-4마디

2. Allegro 주제 악절 C. D. E 순차 진행

5-10마디에서는 2마디를 하나의 프레이즈로 생각하고, 플루트의 5, 7, 9마디 첫 음들(G, A, B)은 순차적 상행과 5-6, 7-8, 9-10은 동형 진행(10마디 변형)을 하고 있다. 7마디에서 G Major로 전조 되며, 6마디와 8마디 첫 박자 플루트의 16분음표 선율을 Basso Continuo 상성부가 동형진행으로 받아서 나온다. 이 부분은 독주자와 반주자 간의 대화체로서 두 연주자가 악보에 대한 인지가 중요하다. Basso Continuo 하성부 5-10마디까지 순차적 반음 상행하며, 결국 플루트 5, 7, 9마디 선율(G, A, B)과 함께 단3도 상행을 보여준다. <악보 8 참조>

<악보 8> 5-12마디

(G. A. B 순차적 상행 진행과 동형 진행)

14-16마디 Basso Continuo 내성 리듬 형이 1-3마디 4분음표 리듬 형에서 2분음표 리듬 형으로 변형된다. <악보 9 참조>

<악보 9> 1-3마디, 14-16마디

BC 1-3마디

BC 14-16마디

17마디에서는 플루트 선율 각박의 첫 음들이 순차 상행(B, C, D)하며, 곧바로 18마디에서는 플루트 선율은 온 음계적 순차 하행진행(E, D, C)을 나타내고 있는데 Basso Continuo 하성부 파트는 플루트의 선율과는 다른 순차 상행(G, A, B, C, D, E)진행만을 하고 있다. 그러나 18마디에서는 Basso Continuo 하성부 파트는 플루트와 반 진행의 효과를 나타낸다. A는 19마디에서 종지가 이루어지는데, 2악장의 원조와 다르게 G Major의 V-I 정격종지로 마무리하며 B부분으로 넘어간다. <악보 10 참조>

<악보 10> 17-20마디

BC : G. A. B. C. D. E 순차 진행

V I

21마디부터 시작되는 B 부분의 21-24마디는, A 부분 1-4마디에 나오는 주제 악절의 5도 위로, 25-28마디는 6도 위로 진행하며, 이 선율들은 동형진행임을 알 수가 있다. <악보 11 참조>

<악보 11> 21-28마디

B
21 A부분 주제악절 5도위 (동형 진행) 22 23

6 6 5 6 5 9 6

A부분 주제악절 6도위 (동형 진행) 24 25 26

4 6 6 6 6 6 5 6 5

27 28 29 30

9 6 4 6 6 6 6 6 7 6

플루트 파트 29 - 30마디를 31-32마디에서 2도 밑으로 동형진행을 보여주며 33마디에서 C Major로 전조 된다. 33마디에서는 16분음표가 지배적인 구성에서 처음으로 2분음표가 나타나는데, 2분음표가 나타남은 빠른 진행에서 긴장감을 잠시 풀어주는 느낌과 플루트 연주자에게도 잠시 여유를 갖게 된다. 그러나 이때 Basso Continuo 하성부는 16분음표를 계속 연주함으로써 16분음표 흐름은 계속 유지된다. 34마디에서는 Basso Continuo 상성부는 플루트와 8도 동형 진행하지만 하성부는 플루트 파트와 반진행 한다. <악보 12 참조>

<악보 12> 29-34마디

29. 30 마디에서 2도 아래 동형 진행

8도 동형 진행

f1와 반진행

C :

33마디 2분음표 플루트 선율은 36마디 2분음표에서 단 3도 위로, 38마디에서는 장 3도 아래로 진행된다. 그리고 36마디 둘째 박자-37마디, 38마디 둘째 박자-39마디는 동형진행을 보여주고 있다. <악보 13 참조>

<악보 13> 33마디, 36-39마디

39-41마디까지 바소 콘티뉴(Basso Continuo) 하성부는 온음계적 순차 상행(G, A, B, C, D, E, F)하고, 40마디에서 플루트 선율이 순차적 상행(E, F, G)하면서, 바소 콘티뉴(Basso Continuo) 내성부와 8도 병진행을 하며 플루트 41-42마디는 동형진행을 한다. <악보 14 참조>

<악보 14> 39-42마디

39 40 E. F. G 순차적 상행 동형 진행

8도 병 진행

(G. A. B. C. D. E. F 온음계적 순차 상행)

42 43 44

46-47마디에서 Basso Continuo 내성부 4분음표가 플루트의 16분음표 각 박자의 첫 음과 8도 병진행 하며, 47-48마디에서 C Major V-I 정격중지로 끝난다.

<악보 15 참조>

<악보 15> 46-48마디

46 47 48

8도 병 진행

V I

3) 제 3악장

3악장은 4/4박자의 Adagio의 빠르기로, 조성은 1. 2 악장들의 조성인 C Major의 나란한조인 a minor로 A-B-A' 형식이다. 3악장에서 바소 콘티뉴(Basso Continuo)는 더욱 서정적인 선율로 플루트 멜로디를 협조하여 아름답게 이끈다.

3악장 형식 구조는 <표 5>와 같다.

<표 5> 3악장 형식 구조

형식	박자	마디	빠르기	조성
A	4/4박자	1-5	Andante	a minor
B		6-9		G Major-a minor
A'		10-14		a minor

1, 2마디가 3악장의 주제 선율이고, 전 악장들보다는 전혀 다른 느낌의 선율로 나타난다. 플루트의 선율은 트릴과 꾸밈음에 의하여 장식되어 더 화려하게 반복, 변형되어 진행된다. 이때 1. 2마디에서 바소 콘티뉴(Basso Continuo) 하성부는 순차 상, 하행 진행하며, 바소 콘티뉴(Basso Continuo) 1마디 첫째, 둘째 박자(8분음표), 2마디 넷째 박자(8, 16분음표), 3마디 둘째 박자(8, 16분음표)는 3도 병진행을 보여주고 있다. 4마디에서 C Major로 전조 되며 4-5마디 둘째 박자부터 주제선율도 전조된 C Major의 단 3도 위로 나타난다. <악보 16 참조>

<악보 16> 1-5마디

3. Adagio 주제 선율

3도 병진행

순차 상·하행 진행

주제선을 단3도 위

B 부분인 6마디부터 G Major로 전조 되며, 6마디 첫째, 둘째 박자의 플루트 파트 선율을 Basso Continuo 상성부가 셋째, 넷째 박자 4도 낮게 이어받는다. 플루트 8마디 넷째 박자부터 10마디까지 순차 하행(D, C, B, A) 진행하며, 이때 Basso Continuo의 8마디 상성부 넷째 박자부터 역시 플루트와 8도 병진행 함으로 멜로디 음폭을 넓혀준다. <악보 17 참조>

<악보 17> 6-10마디

10마디부터 A' 되고, 원조인 a minor로 다시 전환되며 10-11마디에서 주제 선율이 a minor로 반복되어 나타난다. 플루트 11마디 넷째 박자부터 순차하행(F, E, D, C, B, A)하며, a minor의 V-I 정격종지로 3악장이 마무리되는데, 13마디 넷째 박자 점 8분음표 B 음은, 악보에 트릴은 없지만, 일반적으로 트릴과 함께, 끝 16분음표 A음은 선행음(anticipation)⁹⁶⁾으로 연주 되어진다. <악보 18 참조>

<악보 18> 10-14마디

8 9 10 A' 주제 선율 반복

11 12 13 14 순차 하행 (F. E. D. C. B. A) 선행음

a: 5 4 # 6 5 4 3 6 5 6 5 9 6 5 4 # a: 6 6 4+ 8 7 5 7 5 7 5 7 5 # 6 4 5 4 # V i

4) 제 4악장

4악장은 3/4으로 Menuet I, II로 되어있으며 C Major의 나란한조인 a minor로 조바꿈 된다.

Menuet II 연주가 다 끝나고 나면, 다카포에 의해서 다시 Menuet I으로 반복 없이 연주되는 복합 3부 형식으로 이루어져 있다. 마지막 악장이 다른 소나타와

96) anticipation: 선행음, 예상 음이라고도 하며 다음의 강박에 와야 할 음이 앞의 박에 미리 나오는 경우

는 달리 Menuet를 썼다는 것이 독특한 점이며, Menuet를 사용함으로써 이 소나타가 모음곡이라는 인상을 주기도 한다.

4악장 형식 구조는 <표 6>과 같다.

<표 6> 4악장 형식 구조

형식		박자	마디	빠르기	조성
Menuet I	복합 3부 형식	3/4	1-16	Menuet	C Major
Menuet II			1-28		a minor

(Menuet I)

Menuet I 은 붓점 리듬과 꾸밈음을 활용하여 3박자의 춤곡으로, 밝고 경쾌한 느낌을 주고 있다. Basso Continuo 상성부는 대체로 8분음표 리듬 형으로 진행되고, 플루트 선율과 Basso Continuo 상성부 선율이 거의 같은 선율을 연주하여 일치되는 느낌을 준다. <악보 19 참조>

<악보 19> 1-4마디

4. Menuet I

6마디에서 G Major로 전조 한 후 7-8마디 플루트 선율과 Basso Continuo 상성부가 거의 같이 동형진행하다 8마디에서 G Major로 정격종지 된다.

<악보 20 참조>

<악보 20> 5-8마디

9마디는 다시 C Major가 되며, 플루트 선율은 1마디 선율에서 완전 4도 아래로 시작한다. 9-12마디 플루트 선율과 Basso Continuo 상성부는 같은음으로 진행된다. 13마디에는 처음 선율이 반복되어 나오며, 13-16마디에서 플루트 선율과 Basso Continuo 상성부는 다시 같은음으로 진행된다. 16마디에서 C Major V-I로 정격종지 한다. <악보 21 참조>

<악보 21> 9-16 마디

(Menuet II)

Menuet II의 조성은 C Major의 나란한조인 a minor이며, 플루트 선율은 8분 음표 음형이 주를 이루고 있다. Basso Continuo 하성부 선율은 주로 4분음표 음형을 이루며 대선율로 연주된다. 5-7마디는 동형진행을 이루고 있으며, 6마디 C Major로 전조 되고, 8마디는 C Major의 V-I 정격종지로 맺는다. <악보 22 참조>

<악보 22> 1-8마디

5. Menuet II

11마디에서부터는 자주 전조 되는 양상을 보여주는데, 11마디는 G Major로, 15마디는 e minor로 되면서, 16마디는 e minor로 정격종지가 된다.

<악보 23 참조>

<악보 23> 11-16마디

17마디는 d minor로, 20마디부터 다시 C Major로 전조 되지만, 21마디는 곧 a minor로 전조되는, 짧은 순간에 많은 조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17-18마디, 19-20마디, 21-22마디들은 동형진행을 이루며 동형진행하는 각 첫 음은 순차 하행(E, D, C)을 보여준다. <악보 24 참조>

<악보 24> 17-22마디

27, 28마디에서 a minor의 V-i 정격종지 하며, 다시 Menuet I 으로 돌아가 (Da Capo) 반복 없이 연주하여 처음 조성의 C Major의 V-I으로 4악장을 끝낸다. 다시 Menuet I 으로 돌아가 연주할 때 연주자는 개인 기량에 따라 셈여림, 리듬, 아티큘레이션과 장식을 더 하여 곡의 변화를 줌으로써 똑같은 음울을 반복하는 지루함을 없애면서 화려함과 기교를 나타내기도 한다. <악보 25 참조>

<악보 25> 27-28마디

III. 결 론

본 논문에서는 플루트 연주자들이 가장 선호하며 즐겨 연주하는 바흐 소나타 중에서 선택한 Flute Sonata in C Major, BWV 1033의 각 악장의 형식, 작곡기법 등을 분석하고 연구하였다.

요한 제바스티안 바흐의 Sonata BWV 1033은 종교음악보다는 세속적인 기악 음악들을 많이 작곡한 1717 - 1723년 쾨텐 시기에 작곡되었다. 악장별 분석이 들어가기 전, 바흐와 바로크 음악의 이해를 돕기 위해, 바흐의 생애와 그의 음악, 바로크 시대 기악 음악들을 살펴보고 바흐 시대의 음악 환경을 살펴보았다.

Flute Sonata in C Major, BWV 1033의 각 악장은 느리게-빠르게-느리게-빠르기의 4악장으로 구성된 교회 소나타 형식이다. 제1악장은 4/4박자 2부 형식으로, Andante 부분은 Flute의 16분음표의 음형, Basso Continuo의 화음으로 플루트 선율을 받쳐주는 것이 특징이다. Presto에서 플루트 파트의 6, 10도 도약으로 음폭을 넓히며, Basso Continuo C Major 으뜸음 지속과 Rhythmic rit. 기법으로 종지 느낌을 잘 나타낸다.

제2악장은 C Major 3/4박자, Allegro A-B 2부 형식이다. Flute의 16분음표의 빠른 선율과 Basso Continuo 분산화음에 의한 리듬 음형이 진행되며 Basso Continuo 계류음의 리듬변형도 특징이다. 제3악장은 4/4박자의 Adagio, C Major의 나란한조인 a minor로 A-B-A' 형식이다. Basso Continuo 서정적인 선율이 돋보이며, 각 성부 간에 대위적인 움직임으로 푸가 성격이 드러나는 악장이다.

4악장은 3/4으로 복합 3부 형식으로 되어있다. Menuet I 은 C Major이며 플루트와 Basso Continuo 상성부 선율이 같은음과 Basso Continuo 분산화음 반주형식이 돋보인다. Menuet II는 a minor 조성이며, 플루트 선율과 Basso Continuo 하성부는 4분음표 음형을 이루며 대선율로 연주된다. 다카포에 의해 Menuet I으로 돌아가 처음 조성의 C Major의 V-I으로 4악장을 끝낸다.

결론적으로 바흐 Sonata BWV 1033은 4악장으로 구성된 교회 소나타 형식이지만, 마지막 악장에 Menuet 두 개로 되어있어서 실내 소나타 형식과 혼합된 형식 구조를 보인다. 마지막 4악장의 Menuet가 바흐의 다른 Flute 소나타들과 다

른 형식상의 특징을 보여주고 있는 이유로, 이 작품의 진위성이 현재까지도 많은 학자에 의해 의견이 있음을 보게 된다.

전체적으로 플루트 선율은 16분음표 진행과 동형진행, 반복으로 이어져 나가고, Basso Continuo는 단순함과 화음 양식, 분산화음 양식으로 되어있으며, 두 성부 간의 병진행과 반진행, 순차진행이 자주 나타난다. 특히 8도 병진행으로 Basso Continuo는 플루트의 음폭을 넓혀주는 역할이 돋보이며, 조성은 C Major의 관계 조성으로 전조하고, 악곡은 정격종지에 의해 마치는 것이 특징이다.

분석과정에서 션여림과 아티클레이션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못한 점은 큰 아쉬움으로 남으며, 본인에게도 숙제로 남아있다. 이 논문과정을 통하여 본인은 바흐 소나타에 대해서 많은 이해와 공부가 되는 계기가 되었다.

본 논문 악곡 분석이 바흐 소나타를 연주하는 연주자들에게 효과적인 연주해석을 하는 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참고문헌

<단행본>

Quantz, Johann J.. 「플루트 연주의 예술」 (Eine Anweisung die flote traversiere zu spielen). 연세대학교 음악연구소 옮김. 음악세계, 2011.

<정기간행 학술지>

나주리. “히데미트의 「음의 유희」와 바하의 「평균율클라비어곡집」.” 「음악과 민족」 28 (2004): 202.

_____. “베토벤의 피아노소나타 op. 110의 후가: 그 예스러운 ‘시적 아이디어’에 대하여.” 「음악논단」 45 (2021): 102.

Addington, Christopher. “Johann Sebastian Bach.” *The Musical Quarterly* 71 (1985): 264.

<학위논문>

김계향. “J. S. Bach의 Flute Sonata BWV.1033과 O. Taktakishvili의 Flute Sonata에 대한 비교 연구.” 경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2.

김은주. “J.S. Bach의 Flute Sonata in C Major BWV 1033 작품분석연구.” 계명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6.

김해나. “J.S. Bach의 Flute Sonata in C Major B.W.V. 1033과 F. Poulenc의 Flute Sonata에 대한 비교연구.” 가천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9.

박해상. “플루트의 구조적 변천 과정에 관한 고찰.” 동덕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4.

신혜영. “멘델스존과 J. S. 바흐.” 한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7.

- 성은민. “Johann Sebastian Bach Sonata for Flute and Basso Continuo in C Major, BWV 1033 과 Sergei Prokofiev Sonata for Flute and Piano in D Major, No.2 Op.94 에 관한 연구.” 단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1.
- 안명기. “P. Hindemith 음악에 대한 분석 연구.” 창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2.
- 안주희. “J.S. Bach의 Sonata in C Major for Flute and Piano, BWV. 1033에 대한 연구분석.” 단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3.
- 이명희. “쾨베르크 조곡과 바하 조곡의 비교분석.” 경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2.
- 이미경. “J.S Bach의 관현악 모음곡 2번 B.W.V 1067과 Flute Sonata B.W.V 1033에 관한 비교연구.” 경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5.
- 이희영. “베토벤(L. v. Beethoven) 후기피아노음악에 나타나는 푸가 특징연구 : 『Piano Sonata Op. 110의 3악장』 과 『Diabelli-Variations의 32 Var.』 을 중심으로.” 명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7.
- 이호건. “An Analytic Study of F. Chopin’s 24 Preludes, Op. 28: Focusing on Some Innervations in Musical Form.” 한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7.
- 황혜은. “Robert Schumann의 오르간 음악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3.

<인터넷자료>

[https://musopen.org/music/Bach Flute Sonata in C major, BWV1033/MUSOPEN#P1.](https://musopen.org/music/Bach%20Flute%20Sonata%20in%20C%20major%2C%20BWV1033/MUSOPEN#P1)

2021년 2월 3일 접속.

[https://www.bachvereniging.nl/en/bwv/bwv-1032/Flute Sonata in A major /Netherlands](https://www.bachvereniging.nl/en/bwv/bwv-1032/Flute%20Sonata%20in%20A%20major/Netherlands%20Bach%20Society#p1)

Bach Society#p1. 2021년 6월 23일 접속.

<악보>

Bach, Johann Sebastian. *J. S. Bach Sonata in C Major for Flute and Basso Continuo /Eb Major for Flute and Harpsichord and G minor for Flute and Harpsichord (BWV. 1033, 1031, 1020)*. Edited by Alfred Dürr. New York: Bärenreiter Kassel. Basel, 1975

Bach, Johann Sebastian. *Bach, J. S. 3 Sonatas for Flute & Figured Bass*. Vol. II. Realization of the Figured Bass by Robert Veyron-Lacroix. New York: International Music Company, 1962.

Abstract

Research and Analysis on Sonata in C Major for Flute and Basso Continuo, BWV 1033, by Johann Sebastian Bach

Kyung A Baek

Jeju National University,
Graduate School Department of Music

Supervised by professor Dae-Sik Hur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paper is to explain the musical characteristics of Johann Sebastian Bach (1685-1750) and to study and analyze form, composition technique, and characteristics of each movement of <Flute Sonata in C Major, BWV 1033>. Previous papers on <Flute Sonata in C Major, BWV 1033> mainly focused on harmony and formal analysis. Naturally, this report also examines some of the same issues that were discussed in those studies. It also explains the performance techniques that performers need.

In order to understand this music accurately, this study approaches it in four ways. First, it examines the characteristics of J. S. Bach music by observing J. S. Bach's life and music. Second, it investigates the types of instrumental music of the Baroque era. Third, it mentions the flute instrument at the time <Flute Sonata in C Major, BWV 1033> was composed and J. S. Bach's 8 flute sonatas.

Finally it analyzes <Flute Sonata in C Major, BWV 1033> from the performer's perspective for each movement.

This paper, studied from a performer's view, describes not only the general

explanation of J. S. Bach's musical works but also provides analysis of <Flute Sonata in C Major, BWV 1033> as a musical composition and the performance techniques for the musical piece.

This study hopes to clarify for flutists in understanding the form and the structure of the musical composition as the performance technique.